

第3回 百濟文化 国際シンポジウム

제 3 회
백제문화국제심포지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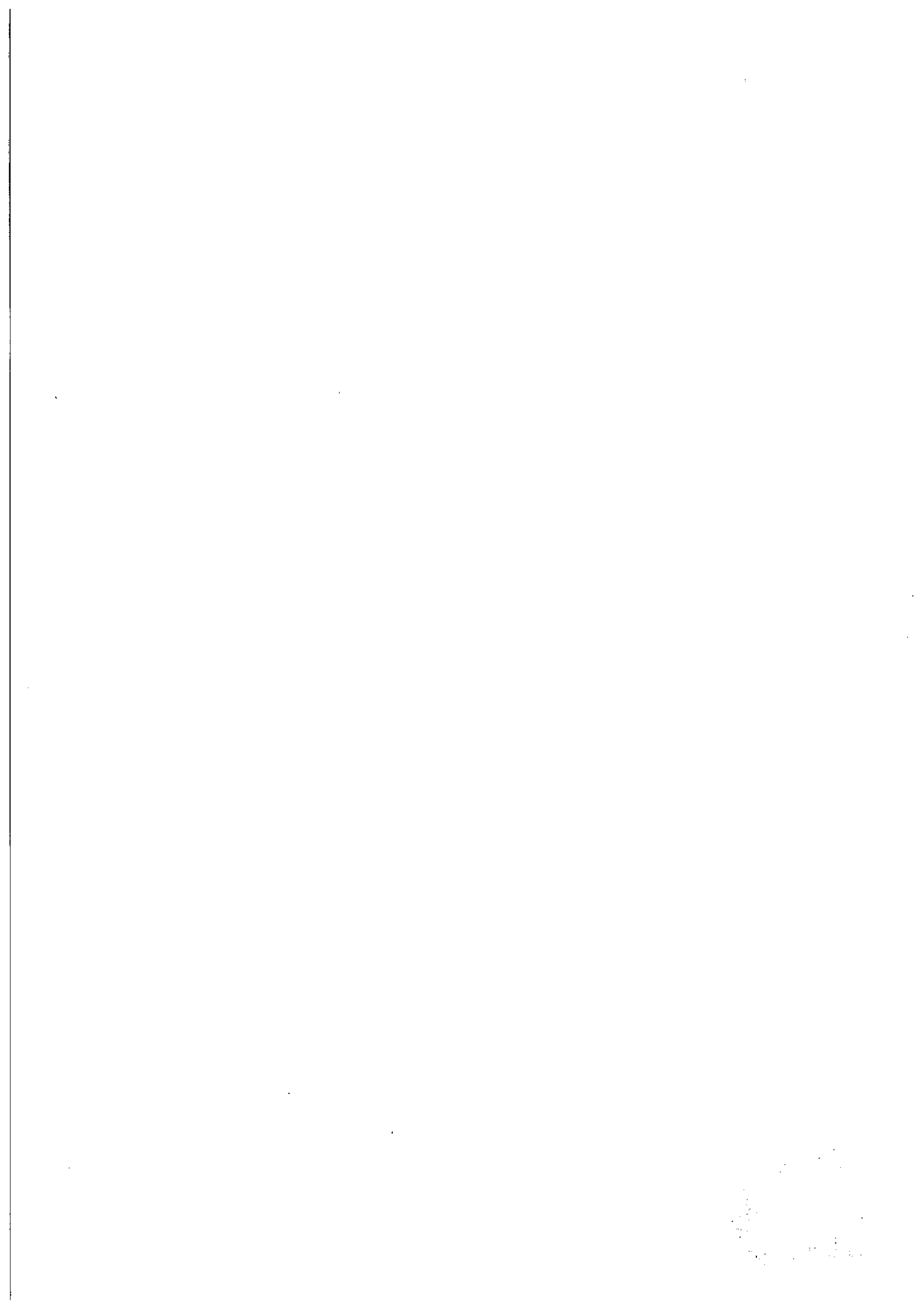
日時 2010(平成22)年 12月10日(金)12:50~16:50
11日(土) 9:20~11:50

会場 奈良教育大学 大会議室

主催 奈良教育大学 東京学芸大学 公州大学校

後援 平城遷都1300年記念事業協会 日本放送協会奈良放送局
毎日新聞社 奈良新聞社 国際交流振興協会





第3回 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

日時 2010(平成22)年12月10日(金)～11日(土)

会場 奈良教育大学 大会議室

主催 奈良教育大学 東京学芸大学 公州大学校

後援 平城遷都1300年記念事業協会 日本放送協会奈良放送局
毎日新聞社 奈良新聞社 国際交流振興協会

第3回 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

藤原京から現在の奈良の地に遷都して、平城京が誕生したのが710年。今年は1300年目にあたるといって、平城遷都1300年祭が催されています。

律令制度に基づく本格的な都は、現在以上に国際都市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てきました。韓半島、中国大陸、中央アジアの地との交流があったことは、正倉院宝物が物語るところです。また、万葉集第8巻には、山部赤人が詠んだ「百済野の萩の古枝に春待つと居りし鶯鳴きにけむかも」の歌があります。この「百済野」は、一説には奈良県北葛城郡広陵町の百済の辺りだと言われています。

百済と日本の関係はど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のかは諸説様々な考えがありますが、その関係が大変深いものであったことは、万人が認めるところです。天平文化へと続く飛鳥文化、白鳳文化が百済の文化とどのような関係にあったのか、そのことに思いを巡らせることは、1400年以上の文化的交流の歴史を通じて、これからの日韓交流を見つめ直すことでもあります。

かつて百済の都のあった扶余と公州、その公州にある公州大学校と東京学芸大学、奈良教育大学の三大学は、それぞれ国際交流協定大学の関係にあります。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は、2008年10月に第1回を公州大学校で、2009年6月に第2回を奈良教育大学で開催しました。

第3回目となる今年のシンポジウムは、7月に東京学芸大学（東京学芸大学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主催）で開催された後、12月に公州大学校、東京学芸大学及び奈良教育大学の三大学主催で奈良教育大学において開催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平城遷都1300年の年に奈良の地で本シンポジウムを開催することに、大きな意義があると考えた次第です。

これまでのシンポジウムでは、「百済と日本の文化に関するさらなる研究交流を通じて、日韓関係の歴史的な理解を深め、より確かな国際交流の絆を築いていく」ということを狙いとしてきました。「百済から奈良の交流の歴史」について皆様とともに考えることは、地域や国を超えた相互理解、国際理解、さらにはユネスコの提唱する「持続可能な発展のための教育（ESD）」についても大きな示唆を与えるものと確信しております。

2010年11月

韓国 公州大学校	総長	서	만	철
東京学芸大学	学長	村松	泰子	
奈良教育大学	学長	長友	恒人	

제 3 회 백제 문화 국제 심포지엄

후지와라쿄에서 현재의 나라로 천도해 헤이조쿄가 탄생한 것은 710 년입니다. 금년은 1300 년에 해당하는 해로 헤이조 천도 1300 년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울릉제도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수도는 지금 이상으로 국제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한반도, 중국대륙, 중앙아시아 지역과 교류가 이루어졌던 사실은 정창원 보물이 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엽집 제 8 권에는 야마베노 아카히토가 읊은 「구다라노의 싸리나무의 낡은 가지에서 봄을 기다리던 소쩍새는 벌써 울었을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구다라노」는 일설에 의하면 나라현 기타카쓰라기군 고료초(広陵町)의 구다라 근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와 일본의 관계가 어떠한지 여러가지 설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관계가 상당히 깊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덴표문화(天平文化)로 이어지는 아스카 문화, 하쿠호문화가 백제문화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1400 년 이상의 문화적 교류의 역사를 통해 앞으로의 한일교류를 재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옛날 백제의 수도가 있던 부여와 공주, 이곳 공주에 위치한 공주대학교와 도쿄가쿠게이대학, 나라교육대학 등 3 대학은 각각 국제교류협정대학이라는 관계에 있습니다. 백제 문화 국제 심포지엄은 2008 년 10 월에 제 1 회를 공주대학교, 2009 년 6 월에 제 2 회를 나라교육대학에서 개최했습니다.

제 3 회를 맞이하는 금년의 심포지엄은 7 월에 도쿄가쿠게이대학 (도쿄가쿠게이대학 백제 문화 국제 심포지엄 실행위원회 주최) 에서 열린 후, 이번 12 월에 공주대학교와 도쿄가쿠게이대학, 나라교육 대학 등 3 개 대학 주최로 나라교육대학에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헤이조 천도 1300 년에 해당하는 해에 나라지역에서 본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심포지엄에서는 「백제와 일본의 문화에 관한 새로운 연구 교류를 통해 한일 관계의 역사적 이해를 심화시키고 보다 확고한 국제 교류의 연대를 구축해 나간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 왔습니다. 「백제에서 나라에의 교류의 역사」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지역과 나라를 초월한 상호이해와 국제이해, 나아가 유네스코가 제창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ESD)」에 대해서도 큰 시사를 주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2010 년 11 월

한국 공주대학교	총장	서 만철
도쿄가쿠게이대학	학장	무라마쓰 야스코
나라교육대학	학장	나가토모 쓰네토

第3回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

第1日目 12月10日(金)

12:20 - 12:50	受付		
12:50 - 13:00	開会挨拶	奈良教育大学 学長	長友 恒人
13:00 - 14:30	研究発表 I		
	高松塚古墳壁画・キトラ古墳壁画の保存管理の経緯と現状	文化庁文化財部 古墳壁画室長 文化庁文化財部 古墳壁画室対策調査官 文化庁文化財部 古墳壁画室文化財調査官	栗原 祐司 建石 徹 宇田川 滋正
	熊津時代の百済と倭	公州大学校 教授	鄭 載潤
	古代有用植物の利用と伝来	奈良教育大学 教授	金原 正明
14:40 - 15:40	研究発表 II		
	可搬型蛍光X線分析装置による彩色材料の同定	東京学芸大学 大学院修了生	佐藤 香子 三浦 麻衣子 坂上 恵梨 広瀬 真紀
	扶余定林寺址出土塑像の冠制についての考察	奈良教育大学 大学院院生	山本 夏海
	終末期古墳に使用された漆喰の原材料研究	奈良教育大学 大学院院生	鶴 真美
15:50 - 16:50	講演 I		
	考古学から見た百済と倭 ―装身具をめぐる問題を中心として―	京都大学 大学院文学研究科 准教授	吉井 秀夫

第2日目 12月11日(土)

8:50 - 9:20	受付		
9:20 - 9:30	挨拶	東京学芸大学 理事・副学長	田中 善美
9:30 - 11:50	講演 II		
	百済と東大寺	東大寺長老・東大寺学園理事長・奈良県教育委員長	上野 道善
	文献から見た百済と倭	滋賀県立大学 人間文化学部 教授	田中 俊明
	熊津・泗泚期の百済文化	公州大学校 教授	李 南 爽
11:50 - 12:00	閉会挨拶	公州大学校 総長	徐 萬 哲

発表は日本語または韓国語で行われます（逐次通訳があります）

제 3 회 백제 문화 국제심포지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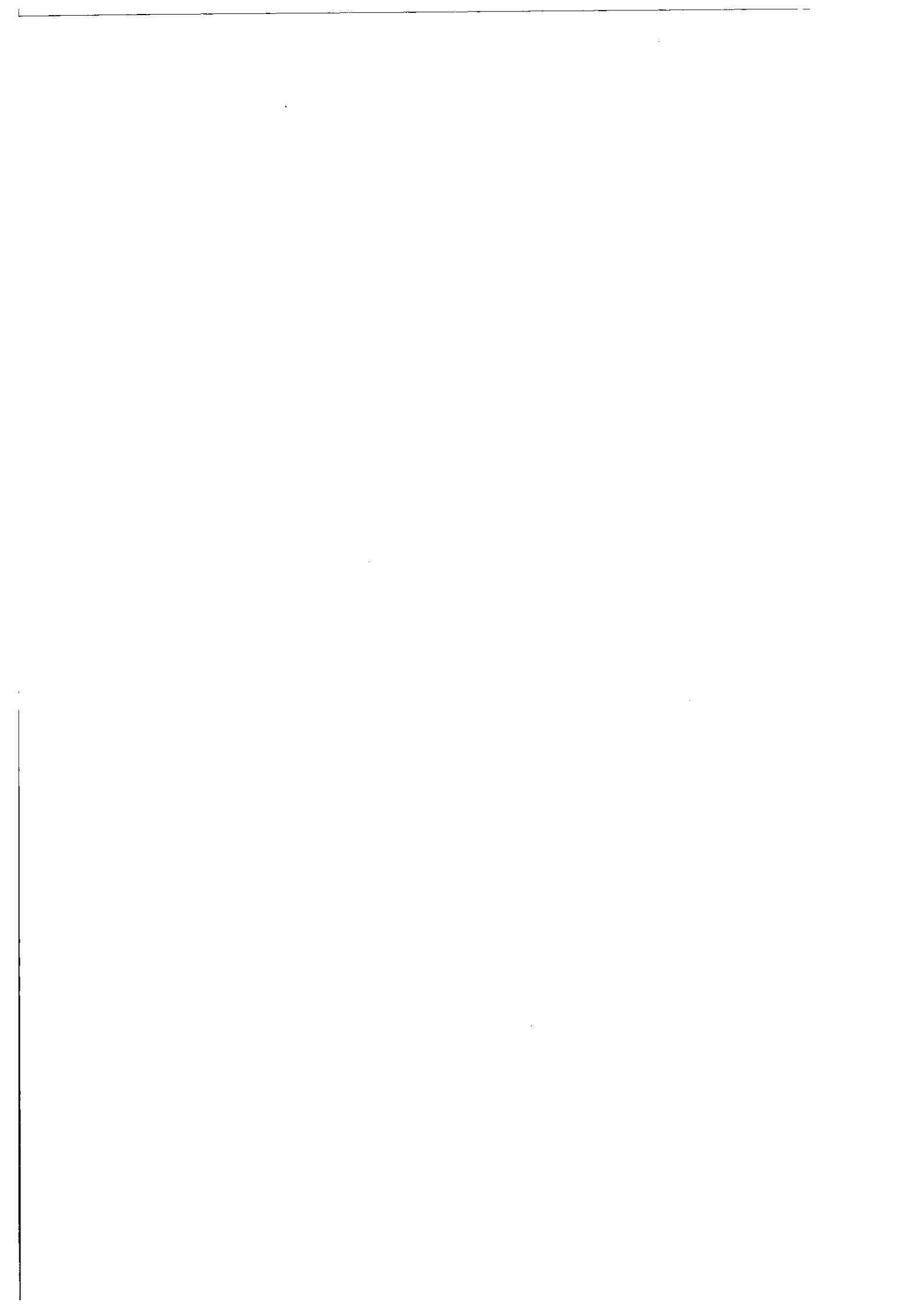
제 1 일째 12 월 10 일 (금)

- 12:20 - 12:50 접수
- 12:50 - 13:00 개회인사 나라교육대학학장 나가토모 쓰네토
- 13:00 - 14:30 연구발표 I
- 타카마츠즈카 고분벽화, 키토라 고분벽화의 보존관리의 경위와 현상
문화청 문화재부 고분벽화실장 쿠리하라 유우지
문화청 문화재부 고분벽화실 대책조사관 타테이시 토오루
문화청 문화재부 고분벽화실 문화재조사관 우타가와 시게 마사
- 熊津時代 百濟와 倭
공주대학교 교수 정 재윤
- 고대 유용식물의 이용과 전래
나라교육대학 교수 카네하라 마사아키
- 14:40 - 15:40 연구발표 II
- 가반형 형광엑스선 분석장치에 의한 채색재료의 동정
동경학예대학 대학원 수료생 사토우 쿄코
미우라 마이코
사카가미 에리
히로세 마키
- 부여 정립사지 출토 소상의 관제에 대한 고찰
나라교육대학 대학원 대학원생 야마모토 나쓰미
- 종말기 고분에 사용된 칠식의 원재료 연구
나라교육대학 대학원 대학원생 쓰루 마키
- 15:50 - 16:50 강연 I
- 고고학을 통해서 본 백제와 왜 - 장신구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
교토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준교수 요시이 히데오

제 2 일째 12 월 11 일 (토)

- 8:50 - 9:20 접수
- 9:20 - 9:30 인사 도쿄가쿠게이대학 이사·부학장 다나카 요시미
- 9:30 - 11:50 강연 II
- 백제와 동대사
동대사장노·동대사학원이사장·나라현교육위원장 우에노 도젠
- 문헌에서 본 百濟와 倭
시가현립대학 인간문화학부 교수 다나카 도시하루
- 熊津·泗泚期の 百濟文化
공주대학교 교수 이 남석
- 11:50 - 12:00 폐회 인사 공주대학교 총장 서 만철

발표는 일본어, 또는 한국어입니다. (순차 통역)



第1日目 12月10日(金)

13:00 - 14:30	研究発表 I 高松塚古墳壁画・キトラ古墳壁画の保存管理の経緯と現状 文化庁文化財部 古墳壁画室長 文化庁文化財部 古墳壁画室対策調査官 文化庁文化財部 古墳壁画室文化財調査官 熊津時代の百済と倭 古代有用植物の利用と伝来	栗原 祐司 建石 徹 宇田川 滋正 公州大学校 教授 奈良教育大学 教授	鄭 載 潤 金 原 正 明
14:40 - 15:40	研究発表 II 可搬型蛍光X線分析装置による彩色材料の同定 東京学芸大学 大学院修了生 扶余定林寺址出土塑像の冠制についての考察 奈良教育大学 大学院院生 終末期古墳に使用された漆喰の原材料研究 奈良教育大学 大学院院生	佐藤 香子 三浦 麻衣子 坂上 恵梨 広瀬 真紀 山本 夏海 鶴 真美	
15:50 - 16:50	講演 I 考古学から見た百済と倭 一装身具をめぐる問題を中心として一 京都大学 大学院文学研究科 准教授	吉井 秀夫	

제 1 일째 12 월 10 일 (금)

13:00 - 14:30	연구발표 I 타카마즈즈카 고분벽화, 키트라 고분벽화의 보존관리의 경위와 현상 문화청 문화재부 고분벽화실장 문화청 문화재부 고분벽화실 대책조사관 문화청 문화재부 고분벽화실 문화재조사관 熊津時代 百濟와 倭 고대 유용식물의 이용과 전래	쿠리하라 유우지 타테이시 토오루 우타가와 시게마사 공주대학교 교수 나라교육대학 교수	정 재 윤 카네하라 마사아키
14:40 - 15:40	연구발표 II 가반형 형광엑스선 분석장치에 의한 채색재료의 동정 동경학예대학 대학원 수료생 부여 정립사지 출토 소상의 관제에 대한 고찰 나라교육대학 대학원 대학원생 종말기 고분에 사용된 칠식의 원재료 연구 나라교육대학 대학원 대학원생	사토우 료코 미우라 마이코 사카가미 에리 히로세 마키 야마모토 나쓰미 쓰루 마미	
15:50 - 16:50	강연 I 고고학을 통해서 본 백제와 왜—장신구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교토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준교수	요시이 히데오	

高松塚古墳壁画・キトラ古墳壁画の保存管理の経緯と現状

宇田川滋正・建石 徹・栗原祐司（文化庁文化財部古墳壁画室）

文化庁では、昭和47年に壁画が発見された高松塚古墳と、昭和58年に壁画が発見されたキトラ古墳の保存管理を行っている。石室内の漆喰上に大陸風・極彩色の壁画が描かれた例は、現在まで国内ではこの2例のみで、大変貴重なものである。

高松塚古墳・キトラ古墳は、奈良県高市郡明日香村に所在する。いずれも7世紀末～8世紀初頭に築造されたと考えられ、「終末期古墳」と呼ばれる。これらの石室の内部に壁画（高松塚古墳：天文図、四神図、人物群像等 キトラ古墳：天文図、四神図、十二支像等）が描かれていたことから、考古学・美術史学・古代史学等の多方面より注目された。

高松塚古墳は昭和48年に特別史跡に、昭和49年には壁画を国宝としてそれぞれ指定した。昭和48年には壁画を「現地保存」する方針が決定され、以降、石室の解体が行われるまでの間、現地に保存施設を設置してさまざまな保存対策を講じてきた。キトラ古墳は平成12年に特別史跡に指定した。

高松塚古墳の石室では過去2度のカビの大発生（昭和55年～59年頃、平成13年～17年頃）があり、壁画の劣化が進んだため、平成17年に「石室解体修理」の方針の決定をした。この方針を受け、平成19年に石室解体作業を実施した。壁画・石材は現在、同古墳近くに設置した仮設修理施設で修理作業を進めている。修理作業は約10年を要すると見込まれ、年に2回、修理の進捗報告を兼ねた修理作業室の一般公開を実施している。

キトラ古墳壁画は、発見当初より石材から漆喰層の浮いている箇所が認められ、平成16年に壁画の全面取り外しが決定された。取り外し作業を進める中で、石室内では高松塚古墳壁画と同様にカビ等の生物被害が進行した。平成22年11月にすべての壁画取り外し作業が終了し、現在は、取り外した壁画の修理を行っている。応急処置を終えた壁画の一部については、平成18年から奈良文化財研究所飛鳥資料館で随時公開してきた。壁画の実寸大の複製陶板を製作し、展示等に活用している。

文化庁では、平成22年度から新たに「古墳壁画の保存活用に関する検討会」を設置し、高松塚古墳・キトラ古墳及び他の壁画古墳（装飾古墳）の保存活用に資するよう、調査研究を進めている。



キトラ古墳壁画の取り外し作業



キトラ古墳壁画の取り外し作業

타카마츠즈카 고분벽화, 키토라 고분벽화의 보존관리의 경위와 현상

우타가와 시게마사, 타데이시 토오루, 쿠리하라 유우지 (문화청 문화재부 고분벽화실)

문화청에서는, 1972년에 벽화가 발견된 타카마츠즈카고분과, 1983년에 벽화가 발견된 키토라고분의 보존관리를 하고있다. 석실내의 석회질위에 대륙풍, 극채색의 벽화가 묘사된 예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곳 2가지 사례 뿐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있다.

타카마츠즈카고분, 키토라고분은 나라현 타카이치군 아스카무라에 소재한다. 양쪽 모두 7세기말에서 8세기초두에 축조 되었다고생각되며 「종말기고분」이라불린다. 이들 석실내부에 벽화 (타카마츠즈카 고분: 천문도, 사신도, 인물군상등, 키토라 고분: 천문도, 사신도, 십이지지신상등)이 묘사된 점에서, 고고학, 미술사학, 고대사학 등의 다방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타카마츠즈카고분은, 1973년에 특별사적으로, 1974년에는 벽화를 국보로 하여

각각 지정되었다. 1973년에는 벽화를 「현지 보존」 하는 방침이 결정되어, 이후 석실이 해체되기까지, 현지에 보존시설을 설치하여 여러가지 보존대책을 강구해왔다. 키토라고분은 2000년에 특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타카마츠즈카고분의 석실에서는 과거 2번 곱팡이의 대발생(1980~1984년, 2001년~2005년)이 있었으며, 벽화의 열화가 진행

되었기때문에, 2005년에 「석실해체수리」의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 방침으로 2007년에

석실해체작업을 실시하였다. 벽화, 석재는 현재, 동 고분 가까이에 설치한 가설 수리시설에서 수리작업을 진행하고있다. 수리작업은 약 10년 요구되며, 매년 2회에 걸쳐 수리의 진척보고를 겸한 수리작업실의 일반공개를 실시하고있다.

키토라고분벽화는, 발견당초보다 석회질층이 부상한 곳이 발견되어 2004년에 벽화의 전면 해체가 결정되었다. 해체작업 중에 석실내에서 타카마츠즈카 고분과같이 곱팡이등의 생물피해가 진행되었다. 2010년 11월에 모든 벽화의 해체작업이 종료되고, 현재는 해체한 벽화의 수리를 행하고있다. 응급처치를 끝낸 벽화의 일부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나라 문화재연구소 아스카 자료관에서 수시로 공개를 해왔다. 또한 벽화의 실제크기의 복제도판을 제작하고, 전시 등에 활용하고있다.

문화청에서는, 2010년부터 새로이 「고분벽화의 보존활용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고, 타카마츠즈카고분, 키토라고분및 그 외의 벽화고분(장식고분)의 보존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조사연구를 진행하고있다.



타카마츠즈카고분벽화의 수리작업실



키토라고분벽화의 해체작업

熊津時代 百濟와 倭

鄭載潤 (公州大學校 史學科)

<目次>

- I . 序論
- II . 昆支系の 百濟 歸國
- III . 東城王代 百濟와 倭
- IV . 武寧王 이후 百濟와 倭
- V . 結論

I . 序論

475年 高句麗의 漢城 攻擊 때 百濟는 蓋鹵王을 비롯한 그의 直系가 全滅될 程度로 甚大한 打擊을 입었다. 文周王은 熊津 遷都를 斷行하였지만 數年 後 貴族인 解仇에게 弑害되었다. 이러한 狀況을 收拾한 사람은 다름 아닌 倭에서 歸國한 東城王이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면 두 나라 사이가 매우 緊密하였을 것으로 豫測되지만 東城王 때 百濟와 倭의 關係는 뚜렷한 交流 記事가 보이지 않아 선뜻 理解되지 않은 側面이 있다. 이에 반해 東城王을 이어 卽位한 武寧王은 倭와 매우 活潑히 交流한 記錄이 보인다.

두 王의 다른 路線은 百濟의 對外政策과도 密接한 關聯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좁게는 百濟의 對倭政策에 局限되지만 넓게는 百濟의 對外政策을 넘어서 東北亞細亞 情勢와도 關聯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本稿에서는 昆支系の 歸國과 東城王, 武寧王 以後 倭의 關係를 살펴보면서 그 意味를 把握하고자 한다.

II . 昆支系の 百濟 歸國

昆支는 461年 4월에 倭로 派遣되어 6월까지 築紫에 머물렀고, 7월에 畿內에 이르렀다. 1) 通常的인 行路로도 볼 수 있지만 빠른 경우 1달 남짓한 事例도 있기 때문에, 2) 2달 정도 築紫에 머물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그는 왜 日本 列島로 건너갔을까. 昆支의 渡倭 目的은 請兵使 3) 로 보거나 倭의 親百濟 路線을 強化하기 위한 派遣, 4) 이 외에도 百濟系 移住民의

1) 『日本書紀』14 雄略天皇 5年條.

2) 鄭載潤, 2008, 「百濟 王族의 倭 派遣과 그 性格」, 『百濟研究』 47, p.5.

3) 梁起錫, 1981, 「三國時代 人質의 性格에 대하여」, 『史學志』 15, pp.55~56.

4) 延敏洙, 2002, 「古代 韓日 外交史」, 『韓國古代史研究』 27, p.210; 李在碩, 2003, 「5世紀 百濟와 倭國의 關係」, 『百濟研究』 39, p.52.

힘을 結束하여 有事時에 對備하면서 倭 王權과의 軍事 協力을 爲한 것이라는 見解 5)가 있다. 그런데 昆支의 渡倭와 關聯이 있는 池津媛과 情을 통한 石川楯은 河内の 石川郡을 本據로 한 百濟系 氏族으로 推定된다. 6) 이는 昆支의 活動 舞臺가 大和가 아닌 河內 지역이며, 石川의 支流에 該當되는 飛鳥 地域에 定着하였음을 통해 確認된다. 이를 통하여 昆支의 主要 任務가 渡倭人을 統制하고 糾合하는 일과 關聯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무렵 築紫와 畿內 地域에 百濟系 遺蹟이 活潑하게 造營되는 것도 이와 關聯이 있을 것이다. 7)

런데 狀況이 달라졌다. 熊津 遷都 이후 百濟의 危機狀況이 닥치자 求心點 役割을 한 昆支가 歸國하였고, 잇달아 그의 아들인 東城王과 武寧王이 王位에 오르면서 이들을 따르던 勢力이 百濟로 歸國한 것이다. 이는 渡倭人들이 先進文物을 媒介로 倭에 가서 活躍하였듯이 反對로 倭에 基盤을 둔 昆支系가 百濟의 中心勢力으로 浮上하면서 이들과 緣故 關係를 가진 이들이 中庸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롯된 現狀으로 보인다. 그러던 먼저 昆支의 歸國狀況을 살펴보자. 그의 歸國 時期는 正確하지 않으나 內臣佐平에 任命된 直後일 可能性이 크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歸國한 지 3달 만에 死亡하였다. 8) 그의 죽음에 앞서 黑龍이 출현했다는 記事가 暗示하듯이 곤지의 죽음은 疑問이 든다. 通常의으로

그가 政局 運營의 變數가 되지 않았다면 갑작스럽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政治勢力의 확대와 관련이 있고, 이러한 面을 考慮하면 곤지가 홀로 歸國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倭에서 그의 支持勢力이 따라왔을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이를 確認시켜 주는 것은 그의 아들인 東城王의 歸國 狀況이다.

- A. 夏 4月 百濟 文斤王(三斤王; 筆者註)이 죽었다. 天王은 昆支王의 다섯 아들 중 둘째인 末多王이 어린 나이에 聰明하므로 勅命으로 宮殿에 불러 친히 머리를 어루만지며 은근하게 訓戒하고 타일러 그 나라의 王으로 삼았다. 이에 兵器를 주고 아울러 築紫國 軍士 500명을 護衛하여 그 나라에 보냈는데, 이가 東城王이 되었다. 이 해 百濟에서 해마다 바치는 貢物이 다른 때보다 더하였다. 築紫의 安致臣과 馬飼臣 등이 水軍을 거느리고 高句麗를 攻擊하였다(『日本書紀』 14 雄略天皇 23年條).

위의 史料에 의하면 天王은 東城王을 불러 百濟의 王으로 삼았고, 그 理由로 東城王의 聰明함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성왕의 즉위가 가능한 이유로 倭王의 支援說 9)을 主張하기도 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納得하기 힘든 점이 있다. '內裏'는 宮殿에서 天王이 居住한 場所를 말한다. 이와 같은 用語는 5世紀 後半 大和 王朝의 宮殿에 이러한 空間 區分을 비롯한 천황제가 있었는지 根本적인 疑問을 가지게 한다. 空間 區分이란 단순한 居住의 問題가 아닌 天王의 位相을 보여주는 制度의 施行과도 密接한 關聯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

5) 鄭載潤, 1999, 『熊津時代 百濟 政治史의 展開와 그 特性』, 西江大學校 博士學位論文, pp.64~71.

6) 1967, 『日本書紀』 校注 上, 岩波書店, p.462 注 7.

7) 築紫와 畿內 地域에서 昆支의 活動과 關聯된 痕迹으로는 拙稿(2008, 「百濟 王族의 倭 派遣과 그 性格」, 『百濟研究』 47, pp.19~21)를 參照하라.

8) 鄭載潤, 1999, 앞의 冊, pp.72~75.

9)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p.201.

서 '內裏' 라는 用語는 後代에 潤色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證據로 볼 수 있겠다.¹⁰⁾ 이를 통해 우리는 이 記事가 後代에 潤色되었음을 確認할 수 있다.

다음으로 東城王은 歸國할 때 築紫 군사 500 名이 護衛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高句麗의 威脅에 百濟를 支援하기 위한 戰鬪 要員,¹¹⁾ 倭 滯留 當時 百濟人과 倭人을 中心으로 結集한 側近勢力으로 보는 見解¹²⁾가 있다. 아울러 百濟와 우호적인 築紫 세력으로 보기도 한다.¹³⁾ 問題는 護衛 兵士가 이 정도면 東城王이 歸國 當時 側近 勢力을 帶同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點이다. 이들에게는 築紫 세력뿐만 아니라 東城王의 日本 內 基盤이었던 河內 등지의 勢力이 包含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武寧王도 雄略 5 年條의 記事에 의하면 태어난 卽時 百濟로 보내진 것처럼 描寫되었다. 하지만 漢城 陷落 때 蓋鹵王의 直系 등 核心 王族이 沒殺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歸國은 最小限 漢城陷落 以後로 推定된다. 또한 그와 關聯된 傳說이 倭에 남아있다는 것은 逆으로 武寧王이 倭에 어느 정도 基盤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反證해준다.¹⁴⁾ 따라서 武寧王의 歸國도 그가 成長한 以後로 보이기 때문에 일정한 勢力이 同伴하였을 可能性이 있으며, 혹 昆支나 東城王을 따라왔을 可能性도 있다고 생각된다.

以上을 살펴볼 때 5 세기 後半 昆支와, 東城王, 武寧王 등 倭에 基盤을 둔 昆支系의 實勢力들이 百濟에 歸國하였을 때, 이들은 자신의 勢力을 構築하기 위해 그와 緣故를 가진 倭系 人物들을 必要로 하였을 것이다. 倭系 人物들은 百濟에 基盤이 없어 자신을 위해 忠誠을 바칠 수 있는 最適任者이기 때문이다. 倭系 人物들 또한 百濟에 歸國하면 자신들이 中庸될 수 있는 狀況이기 때문에 呼應하였을 것이다. 巴야호로 渡倭人들이 新天地를 찾아 日本列島로 移住해갔듯이 正反對로 百濟系 渡倭人을 中心으로 한 倭人들이 將來가 保障된 百濟로 歸還한 狀況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들은 百濟系 勢力이 分布한 築紫와 畿內 地域을 中心으로 한 사람들일 것이다. 따라서 昆支系의 歸國은 日本列島 內의 親百濟系 勢力의 移動과도 關聯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東城王代 百濟와 倭

東城王이 百濟의 王에 卽位할 수 있었던 것은 倭에 있던 昆支系의 勢力基盤이 바탕이 되었다. 武寧王보다 먼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要因은 그가 昆支의 嫡長子이기 때문이다.¹⁵⁾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東城王은 倭와 密接한 交流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痕迹이 보이지 않아 異常하다. 오히려 東城王 때에는 倭와의 갈등적 要素가 보인다. 아래의 史料는 이와 關聯된 資料이다.

10) 김현구 외, 2002,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 (I), 일지사, p.273.

11) 연민수, 1998, 「5세기 후반 백제와 왜국」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pp.425~426.

12) 백승충, 2006, 「6세기 전반 가야, 백제, 왜 상호관계-소위 '왜계관료'의 활동을 중심으로」, 『加耶, 洛東江에서 榮山江으로』, 金海市, pp.183~184.

13) 鄭載潤, 2007, 「熊津時代 百濟와 倭의 關係에 대한 豫備의 考察-『日本書紀』를 中心으로-」, 『百濟文化』 37, pp.72~74.

14) 鄭載潤, 2007, 「武寧王의 出自와 卽位」, 『熊津都邑期の 百濟』, 忠清南道歷史文化研究員, pp.142~144.

15) 鄭載潤, 1999, 앞의 冊, pp.83~89.

B. 이 해 紀生磐宿禰가 任那에 걸터앉아 高句麗와 通交하고, 서쪽에서 三韓의 王이 되려고 官府를 整備하며 스스로 神聖이라 稱하였다. 任那의 左魯 那奇他甲背의 計策을 利用하여 百濟의 適莫爾解를 爾林 [爾林은 高句麗 땅이다] 에서 죽였다. 또한 帶山城을 쌓아 동쪽 길을 막아 지켜 軍糧을 運搬하는 나루를 遮斷하여 軍隊를 굶주리게 함으로써 괴롭혔다. 百濟王이 크게 노하여 領軍 古爾解와 內頭 莫古解 등을 보내 무리를 거느리고 나아가 帶山城을 攻擊하게 하였다. 이에 紀生磐宿禰는 軍隊를 前進시켜 逆攻하였는데, 膽力이 더욱 旺盛하여 향하는 곳마다 모두 擊破하니 一當百이었다. 얼마 후 軍隊의 힘이 다하니 일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고 스스로 任那로 돌아왔다. 이 때문에 百濟國은 左魯 那奇他甲背 등 300 명을 죽였다 (『日本書紀』 15 顯宗天皇 3 年條).

위의 記事의 時期는 顯宗 3 年 (487) 으로, 東城王 9 年에 該當한다. 이에 따르면 紀生磐宿禰가 任那의 左魯 那奇他甲背의 計策을 利用하여 適莫爾解를 죽임으로써 百濟와 衝突하였고, 百濟王이 이들을 平定하였다 한다. 이러한 衝突이 하필이면 熊津遷都 以後 百濟의 地方에 대한 經略이 이루어지고 있는 時點임을 고려하면 左魯 那奇他甲背와 紀生磐宿禰의 行動은 百濟의 壓迫과 關聯이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百濟가 이들과 衝突한 地域과 理由는 地名과 參與한 人物들의 性格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여기에 登場하는 人物들을 살펴보자. 紀生磐宿禰는 紀氏로, 백제계 渡倭人 16) 혹은 伽倻系 人物 17) 로 보고 있다. 百濟系 渡倭人으로 볼 경우에는 百濟를 背信한 人物이 되며, 이는 政治的 狀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할 경우 그가 駐屯한 地域에 대한 무언가의 壓迫 때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 伽倻系 人物인 경우 百濟와의 軍事的 衝突에서 敗北하였던 日本列島 西部 地域에 위치하였던 伽倻系 小國의 王으로 보기도 한다. 18)

那奇他甲背의 경우도 ‘○○○甲背’ 라는 表現에 注目하여 百濟人으로 보는 見解도 있다 19) 그런데 那奇他甲背는 欽明 5 年 2 月條 記事에 의하면 百濟를 背叛하여 逐出된 것으로 나온다. 20) 분명한 것은 那奇他甲背도 出身地와 상관없이 任那에 대한 百濟의 壓迫과 關聯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은 韓半島에서 活躍한 人物로 百濟의 壓迫에 對處하기 위해 서로의 利害關係가 一致하여 共同의 行動을 취하였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爾林과 帶山城의 位置를 살펴보자. 이 問題는 爾林이 高句麗 땅이며, 爾林과 帶山城은 隣接해있다는 句節이 解決의 실마리를 提供한다. 아울러 東쪽 길이라는 表現은 百濟를 中心으로 놓고 본 表現 21) 이기 때문에 首都에서 東쪽 길에 該當하는 지점을 찾아야 하며, 나루와 관련된 地域이라는 점도 示唆을 준다.

먼저 爾林은 全北 任實郡 22), 全北 金堤郡 伊城縣 23), 忠南 禮山郡 大興面 24) 등으로 比定

16) 千寬宇, 1991 『加耶史研究』, 一潮閣. p.3.

17) 李永植, 1993,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pp.41~42 및 pp.311~312.

18) 연민수, 2003 『古代韓日交流史』, 혜안, pp.158~164.

19) 井上秀雄, 1973, 『任那日本府と倭』, 東出版寧樂社.

20) 『日本書紀』 19 欽明天皇 5 年 2 月條.

21) 李永植, 1994 「百濟의 加耶進出過程」 『韓國古代史論叢』 7,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p.206.

22) 全榮來, 1974 「任實 金城里 石槨墓群」 『全北遺蹟調查報告』 3, pp.94~95.

된다. 帶山城은 爾林과 同一한 地域圈으로 보아 井邑郡 泰仁面²⁵⁾, 全北 任實 附近²⁶⁾ 鎭安郡 龍潭面 月溪里山城으로 보는 見解²⁷⁾가 提示되었다. 爾林이 高句麗 땅이라는 脚註에 注目하면 禮山郡 地域을 상정할 수 있지만 任那의 分布地와 맞지 않는다는 問題가 있다. 反對로 全北 一帶는 任那의 問題를 解決할 수 있지만 高句麗의 땅이라는 脚註를 說明할 수 없다.

이에 任那와 高句麗의 通交 可能한 地點에 注目하여 帶山城을 星州郡 禿用山城²⁸⁾이나 秋風嶺 附近²⁹⁾으로 보기도 한다. 爾林 亦是 最近에는 忠北 陰城郡 혹은 槐山³⁰⁾, 淸州·淸原 一帶로 보는 說³¹⁾이 提起되었다. 먼저 大伽倻 勢力이 洛東江 上流에서 忠北 一帶로 進入할 수 있다는 說明은 可能하다. 그렇지만 大伽倻의 膨脹과 關聯된 事實이 百濟 關聯 記事 속에 言及된다는 점은 納得하기 힘들다. 오히려 이 記事는 該當 氏族의 家傳類에 依存한 것으로, 後裔 氏族에 의해 誇張·潤色되었고, 『日本書紀』 編纂 때 歪曲되었다는 점을 直視해야 한다.³²⁾ 이들 氏族들의 先祖는 百濟에서 活躍하였기 때문에 百濟와 關聯이 있는 交通路에서 찾는 것이 穩當할 듯하다. 따라서 爾林과 帶山城은 百濟와 高句麗와 接境 地域이면서 任那와도 關聯이 있는 地域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示唆點을 주는 것은 아래의 資料이다.

- C. 봄 3월 天皇은 百濟가 高麗에게 擊破되었다는 것을 듣고 久麻那利를 文周王에게 주어 그 나라를 救援하여 일으켜 주었다. 이 때 사람들이 모두 “百濟國은 비록 종족이 이미 亡하여 倉庫 아래 모여 근심하였으나 실로 天皇에 의지하여 다시 그 나라를 만들었다.” 라고 말하였다 [文周王은 蓋鹵王의 친아우이다. 『日本書紀』에 이르되 “久麻那利를 末多王에게 주었다.” 라고 하나 아마도 이는 잘못된 것이다. 久麻那利라는 것은 任那國 下哆呼喇縣의 別邑이다] (『日本書紀』 14 雄略天皇 21 年條).

위의 資料는 마치 倭가 百濟를 再建시켜준 것처럼 潤色이 되었다. 우리가 이 資料에 觀心을 갖는 것은 事實을 떠나서 『日本書紀』 撰者が 갖는 觀點을 엿볼 수 있다는 點이다. 위의 史料에 의하면 熊津은 任那國의 下哆呼喇縣으로 나온다. 이에서 우리는 『日本書紀』 撰자가 任那를 熊津까지 包含하는 廣義의 範圍로 認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의 史料 B에 나오는 任那是 伽倻 地域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때로는 보다 擴大된 意味의 地域으로도 理解된다. 이러한 假定이 틀리지 않다면 爾林과 帶山城은 熊津 地域에서 떨어져 있지 않은 百濟와 高句麗의 接境 地域에서도 찾을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한다. 그 중에서도 ‘나루를

23) 末松保和, 1949, 앞의 冊, pp.76~77.

24) 山尾幸久, 1983,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岩波書店, p.224.

25) 鮎貝房之進, 1937, 앞의 論文, p.413~419; 末松保和, 1949 앞의 冊, pp.106~107.

26) 延敏洙, 1990, 앞의 論文, pp.106~112.

27) 곽장근, 2006 「웅진기 백제와 가야의 역학관계 연구」 『百濟研究』 44, pp.95~101.

28) 千寬宇, 1991, 앞의 冊, pp.83~85; 山尾幸久, 1983 앞의 冊, p.224.

29) 大山誠一, 1980, 「所爲任那日本府について」 『古代文化』 32-11, p.32.

30) 李鎔賢, 1997, 「五世紀におけるの加耶の高句麗接近と挫折—顯宗三年紀是歲條の檢討」 『東アジアの古代文化』 90; 2007, 「伽倻諸國과 東아시아」, pp.52~59; 金泰植, 2006, 「5~6世紀 高句麗와 加耶의 關係」 『北方史論叢』 11, 高句麗研究財團, pp.136~140.

31) 양기석, 2007 「5世紀 後半 韓半島 情勢와 大加耶」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려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pp.54~56.

32) 延敏洙, 2003, 앞의 冊, p.155.

遮斷하였다' 는 表現을 考慮하면 河川과 關聯이 있는 地域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錦江 上流인 淸州·淸原 혹은 大田이나 沃川 方面의 河川도 그 對象이 될 듯하다. 이 경우 모든 條件을 다 充足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紀生磐宿禰는 왜 이 地域에 駐屯하였고 反亂을 일으켰을까. 이는 紀氏의 活動狀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倭 혹은 伽倻의 움직임과도 일정 程度 關聯이 있을 듯하다. 이들은 漢城陷落 當時에 動員된 救援軍 또는 昆支와 東城王의 歸國 때 同伴한 渡倭人으로 推定된다. 그리고 이들은 百濟로부터 獨立을 試圖하다 討伐되었다고 보기도 한다.³³⁾ 이들이 獨立을 試圖한 理由는 힘이 強해졌을 境遇와 反對로 壓迫에 대한 抵抗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東城王은 在位 5年(483) 漢山城에 대한 巡撫를 始發로 8년에는 宮 南쪽에서 크게 사열을 하여 本格的인 地方 經略에 나선다. 공교롭게도 다음 해에 爾林에서 反亂이 일어나는 것은 이와 같은 地方에 대한 壓迫과 關聯이 있다고 보는 것이 無難하다. 爾林 地域은 錦山을 거쳐 鎮安-長水-南原으로 連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記事를 통해 東城王이 卽位 初期에 百濟系 渡倭人을 包含한 倭人들을 活用하여 그의 立志를 굳혀나갔지만 親政體制를 構築한 以後 이들과 葛藤을 보여주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겠다.³⁴⁾

나아가 이를 擴大한다면 百濟와 倭와의 葛藤도 빚어졌을 可能性이 있다.³⁵⁾ 무엇보다도 東城王代 倭와 交流를 나타내는 記事가 없는 點은 最少한 倭와 親密한 關係는 아니었다는 反證도 된다.

IV. 武寧王 이후 百濟와 倭

武寧王은 在位 5年, 前 해에 보낸 麻那君을 斯我君으로 交替하고, 그 이유로 骨族이 아니라는 點을 들고 있다.³⁶⁾ 이는 武寧王의 直系를 보냄으로써 對倭 外交를 強化하겠다는 意志의 表明으로 보인다. 實際 武寧王 以後 百濟와 倭의 關係가 매우 密接해짐은 이를 確認시켜 준다.³⁷⁾

이는 東城王 때 倭와의 通交가 보이지 않고 南朝 爲主의 政策을 取한 것과 對照的이다. 百濟는 南齊에서 高句麗를 驃騎大將軍으로 冊封하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內屬을 請하였다. 元來의 意味로 본다면 '內屬'이란 國家의 獨立體制를 喪失하고 漢나라의 國家體制 속으로 編入되는 것을 意味한다.³⁸⁾ 따라서 '內屬'이란 表現을 重視하면 百濟가 南齊의 領域 속으로 編入되기를 希望하였다는 意味로 받아들일 수 있다.³⁹⁾ 實際와 相關없이 이와 같이 매우 強

33) 金泰植, 1993, 앞의 책, p.113.

34) 東城王代 全羅道 地域으로 보이는 王·侯의 派遣도 이와 關聯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拙稿(2010, 「榮山江流域 前方後圓形墳의 築造와 그 主體」, 『歷史와 談論』 56, pp.261~265)를 參照하라.

35) 李在碩, 2001, 「5世紀末의 百濟와 倭國」, 『日本歷史研究』 14, p.19; 鄭載潤, 2008, 「百濟의 蟾津江 流域 進出에 대한 考察」, 『百濟와 蟾津江』, 百濟學會, pp.245~251.

36) 『日本書紀』 16 雄略天皇 7年 夏4月條.

37) 『日本書紀』 16 武烈天皇 4年 是海條에 東城王에 대한 酷評과 武寧王 卽位에 대한 正當性을 記述한 것은 或은 이와 關聯이 있을지 모르겠다.

38) 金韓규, 「진과 한, 和親과 內屬」, 『天下國家』, pp.97~119.

한 表現은 百濟가 南齊와의 特別한 關係를 自請하는 것으로 解析되며, 既存의 朝貢과는 다른 積極인 試圖로 보인다. 40) 더욱이 7月에는 百濟 外交를 責任지고 있는 內法佐平 沙若思를 直接 派遣하였다. 비록 失敗로 끝났지만 이는 南朝와의 外交를 重視하려는 東城王의 意志를 闡明한 것이라 생각된다. 41) 問題는 이러한 南朝 爲主의 政策으로 對倭 外交가 疎遠해졌다는 點이다.

하지만 武寧王이 卽位한 以後 百濟와 倭의 關係는 友好的이었다. 武寧王은 4年(504) 麻那君을 보내 通交하였으나 倭는 朝貢의 職務를 다하지 않는다고 抑留하였다 한다. 42) 이에서 潤色된 部分만 除去한다면, 이는 이제까지 두 나라 사이에 쌓였던 不滿의 表出일 것이다. 그러나 武寧王은 麻那君을 斯我君으로 交替하고, 繼體가 卽位한 以後 510年, 512年, 513年, 515年, 516年 等 연이어 倭와 通交하였다. 43) 특히 注目되는 點은 五經博士를 週期的으로 交替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를 통해서 武寧王 때 百濟와 倭의 關係가 매우 活潑하였으며, 두 나라의 利益을 增大하는 方向에서 進行된 點을 알 수 있다.

매우 重要한 事實은 武寧王 때 百濟와 梁과의 交流가 擴大된 反面 倭와 梁과의 交流가 보이지 않는다는 點이다. 이는 5世紀에 百濟와 宋, 倭와 宋이 活潑하게 交流한 것과 對照의이어서 注目된다. 南齊 皇帝는 建元 元年(479) 倭王 武에게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 六國諸軍事를 除授하나 이는 새로운 王朝가 開倉되었을 때 하는 儀禮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東城王은 高句麗를 意識하여 南齊에 積極인 外交 政策을 펼쳤다고 理解되나 한편으로 倭와의 疎遠한 關係도 結果적으로 그 影響을 받았던 것은 認知된다. 무엇보다도 南齊를 이어 開倉한 梁과 倭와의 通交 事實이 보이지 않는 것은 百濟 中心의 南朝 外交가 이루어지고 있는 證據가 될 수 있다.

百濟와 梁과의 外交는 先進文物의 受容 次元을 떠나서 매우 重要한 意味가 있다. 武寧王 때 구축된 梁과의 關係는 크게 擴大되었다. 百濟는 527年(大通 元年) 梁武帝를 위해 熊川州에 大通寺를 創建하였다. 44) 이에 대해서는 不定하는 見解도 있지만, 45) ‘大通’ 명 기와가 大通寺址 附近에서 發見된 點과 그 기와가 6世紀 初로 編年되기 때문에 梁 武帝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梁 武帝의 佛教政策을 模倣한 聖王 때 佛教 政策의 一環으로 創建된 것이 아닌가 싶

39) 김수태, 2008, 앞의 論文, 96쪽.

40) 內屬을 請함으로써 高句麗의 攻擊을 南齊가 底止해주기를 바라는 意圖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見解(김현숙, 2003, 「熊津時代 百濟와 高句麗의 關係」,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百濟研究所, pp.148~149)도 있지만, 現實적으로 南齊는 北魏와의 關係 속에서 高句麗를 重視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었다. 따라서 이는 外交인 次元으로 限定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1) 이를 修行한 人物이 新進勢力인 沙氏이고, 이후 昔加가 衛士佐平, 燕突이 兵官佐平으로 重用된다는 事實에서 東城王의 新進勢力 爲主의 政策 方向을 엿볼 수 있듯이(盧重國, 1978,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 『韓國史論』 4, 서울大, p.74; 鄭載潤, 2000, 「東城王의 卽位와 政局 運營」, 『韓國古代史研究』 20, p.514), 東城王의 對南朝 重視 外交 政策의 一面을 보여준다.

42) 『日本書紀』 武烈 6年條.

43) 『日本書紀』 繼體 4年·6年·7年·9年·10年條.

44) 『三國遺事』 3 興法 3 原宗興法條.

45) 다른 나라의 皇帝를 위해서 절을 지었다는 점, 梁武帝가 大通門을 짓기 以前에 이미 大通錢이란 鐵錢이 使用된 점, 大通의 이름이 法華經과 關聯된 이름이라는 點을 들고 있다(조경철, 2007, 「儒佛通治理念의 具顯」, 『泗泚都邑期の 百濟』 百濟文化史大系 研究叢書 5, 忠淸南道歷史文化研究院, pp.79~85).

다. 그렇다면 百濟는 梁의 同泰寺 完工과 비슷한 時期에 大通寺를 完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同泰’ 와 ‘大通’ 이라는 말은 서로 通한다.46) 이러한 事實을 통해 百濟는 梁의 文化를 迅速하게 받아들였고, 이는 그 만큼 百濟가 梁과 매우 密接한 關係를 維持하였던 事實을 보여준다.47) 梁 武帝의 佛敎를 통한 王權強化策을 模倣하여 이를 推進하였고, 聖王이 梁 武帝처럼 轉輪聖王임을 自處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541年 百濟가 梁에 朝貢한 事實은 注目된다. 이 때 百濟는 梁나라에 毛詩博士, 涅槃等 經義, 工匠·詔師 等を 要請하였다. 또한 이 무렵 陸詡가 梁으로부터 와서 百濟에 禮學을 傳授한다.48) 이는 百濟 內部的 必要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지만 百濟의 役割과 關聯하여서도 살펴볼 必要가 있다. 要請한 時期에 何必이면 新羅와 講和가 이루어지고, 다시 4月에 任那復興會議가 열리는 등 梁과의 交流 以後 周邊 國家와의 關係가 매우 緊迫하게 돌아가고 있는 狀況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百濟의 要請과 梁나라의 文物 傳授가 두 나라에만 局限되지 않았다는 事實을 보여준다.49) 다시 말하면 百濟는 梁으로부터 받은 先進文物과 制度를 最大한 活用하여 新羅와 倭를 牽引하면서 高句麗와의 戰爭을 主導하려는 意圖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이 展開되자 梁과 百濟 사이에 이루어진 文化的 network 는 두 나라를 넘어서 韓半島 南部와 日本 列島까지 擴大되었다.50)

결국 梁나라는 百濟를 통하여 韓半島 南部와 日本 列島 勢力을 牽引하면서 北魏와의 競爭에서 優位에 서려는 意圖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梁의 積極的인 後援으로 百濟는 高句麗를 牽制하면서 이들 나라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倭 역시 百濟를 통해서 迅速하게 先進的인 文化를 輸入할 수 있는 network 를 構築함으로써 親百濟的인 基調를 維持하고자 하였다. 梁은 百濟를 통해서 周邊 나라와 共有意識을 形成하여 北魏에 對抗하고, 高句麗를 묶어 둘 수 있는 基盤을 마련한 것이다.51) 百濟는 南朝 爲主의 對外政策을 分明히 함으로써 梁의 支援을 받았다. 이를 통하여 倭의 軍事的 支援, 그리고 新羅의 對高句麗戰의 參與를 誘導하는 서로에게 매우 必要한 交換을 한 것이다.

V. 結論

46) 初 帝創同泰寺 至是開大通門以對寺之南門 取反語以協同泰 自是晨夕講義 多由此門(『南史』7 梁本紀 7 大通元年條).

47) 金壽泰, 2008, 「웅진시대 백제의 대남조 외교」, 『百濟文化 海外調査報告書』VI-中國 南京地域, 국립공주박물관, p.104.

48) 陸詡는 어려서부터 崔靈恩으로부터 三禮義宗을 익혔고, 百濟가 講禮博士를 請하자 派遣된 人物이다(『陳書』33 列傳 27 儒林 鄭灼條). 이러한 事實은 百濟가 國家體制를 整備하는 過程中에 禮學을 受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49) 이용현, 2008, 「6세기 가야제국과 백제·왜」 발표요지문, 『6세기의 한반도』, 百濟研究所, p.7.

50) 新羅가 佛敎를 받아들일 時期인 法興王 15年(528) 梁나라에서 使臣을 보내와 衣服과 香을 보내준 事實, 眞興王 10年(549) 梁나라에서 使臣과 入學僧을 覺德을 派遣하여 부처의 사리를 보내온 것 등은 百濟를 통한 梁과 新羅의 交流를 보여주는 事例이다.

51) 高句麗 立場에서도 이러한 狀況 展開로 百濟나 北魏를 牽制하기 위해서 南朝와의 關係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熊津時代の百済と倭

鄭載潤(公州大学校 史学科)

475年高句麗の漢城攻撃の際、蓋鹵王を含む彼の直系が全滅になる程、甚だしい打撃を受けた。文周王は熊津の遷都を断行したのだが、数年後、貴族である解仇に殺害された。このような状況を收拾した人は他でもない、倭から帰国した東城王であった。このようなことを考慮すると、両国の仲が非常に緊密であったのであろうと予測されるが、東城王の時、百済と倭の関係は明らかな交流の記録が見当たらず、理解できないところがある。これに比べ、東城王に続いて即位した武寧王は、倭ととても活発に交流した記録が見える。

5世紀後半、昆支は東城王、武寧王など倭に基盤を持つ、昆支系の実勢が百済に帰国した際に、彼らは自身達の勢力を構築するため、彼と縁故を持つ倭系人物たちを必要としたのであろう。倭系人物たちは百済に基盤がなく、昆支に忠誠を奉げられる、最適任者のはずである。倭系人物もまた、百済に帰国すると自身達が中庸されることのできる状況であるため応じたのであろう。これは、まさに渡倭人たちが新天地を求め、日本列島に移住したように、正反対に百済系渡倭人を中心とした倭人達が将来が保障された百済に帰還した状況が起こったのである。彼らは百済系勢力が分布した築紫と畿内地域を中心とした人達なのであろう。従って昆支系の帰国は日本列島内の親百済系勢力の移動とも関連があることが分かる。

東城王が百済の王に即位できたのは、倭にいた昆支系の勢力基盤がその基になったのである。武寧王より先に即位できた最も大きな要因は、彼が昆支の嫡長子であっ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面からみると、東城王は倭と密接な交流を行うべきにも関わらず、そのような痕跡が見えないので異常である。むしろ東城王の時には倭との葛藤の要素が窺える。例えば、紀生磐宿禰と那奇他甲背は百済と衝突したのだが、彼らの出身地とは関係せずに任那に対して百済の圧迫と関連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従って、彼らは韓半島から活躍した人物で、百済の圧迫に対処するため互いの利害関係が一致し、共同の行動をしたとみられる。また衝突した地点である、爾林と帶山城は百済と高句麗と関係があるため、高句麗と百済との接境地域でありながら、任那とも関係がある地域で求めるべきである。従って錦江上流である清州・清原、或は、大田や沃川等の河川も、その対象となるのであろう。

武寧王以後の百済と倭の関係を見てみよう。武寧王は在位5年、前の年に遣わした麻那君を斯我君に交替し、その理由で骨族でないことを取り上げている。これは武寧王の直系を派遣することにより対倭の外交を強化しようという意志の表明だと見なされる。実際武寧王以後、百済と倭の関係が非常に密接になったのはこれを確認させてくれる。またこのようなことは東城王の時には、倭との通交が見当たらず、南朝が中心となる政策を取ったことと対照的である。

古代有用植物の利用と伝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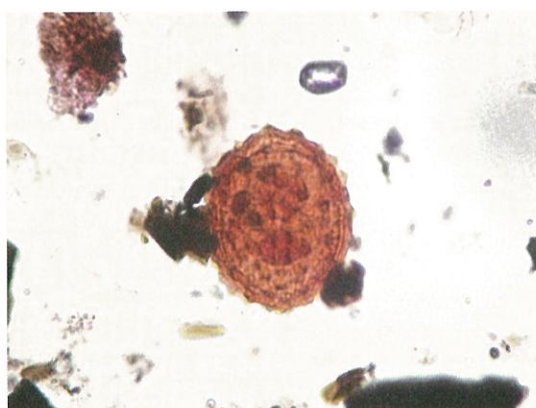
奈良教育大学 金原正明

日本への有用植物の伝播は、古くは縄文時代からヒョウタンの種子が検出され、文化としては弥生時代における水田稲作にともなうイネの伝播が行われる。水田稲作の伝播は、北部九州の弥生時代早期の遺跡群の時期から、イネだけではなくアワ、コムギ（短粒型）、ソバ、モモ、ウメ、そしてササゲ属（アズキ型）の栽培植物群が伴われ、これらの栽培植物が一つの文化要素として伝播してきたと考えられる。栽培植物の伝播は、稲作文化の伝播による1度限りではなく、以後の文化流入にともなって何度か行われる。

邪馬台国である可能性が考えられる纏向遺跡では、3世紀前半にベニバナ花粉が検出され、ベニバナ染色が行われていた。ベニバナは染織の技術とともに伝播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古墳時代後半には新たな形態のモモ核が遺跡から出土するようになり、品種の異なるモモ核が出土するようになる。これは須恵器の伝播期と重なり、須恵器の伝播は新たなモモも伝播し一群の文化要素が伝播したとみなされる。

7世紀から8世紀にかけても、新たな栽培植物の伝来と植物群の利用の伝播が行われるようになる。上之宮遺跡からは新たにナツメが検出され、飛鳥苑池遺跡から新たにアンズが検出され、これらが新たに伝来し、モモ、ウメ、チョウセンゴヨウ、スモモ、ナシ、カキ、そしてベニバナとともに一群として利用される。これら植物は宮跡と考えられる遺跡や京跡から検出され、果物が主である特徴を有し、いずれもビタミン価が高くサプリメント的な食用であると考えられる。これら植物の利用は律令制と関連して利用されだした文化要素とみなされる。また、平城京朱雀大路側溝の花粉分析ではムクゲ花粉がみいだされ、平城京を彩る花として伝わってきている。

これら一群の植物とその利用は大陸から朝鮮半島経由で伝わってきたと考えられ、7世紀に入ったら成立することから、百済との関連が大きいと考えられる。百済においては王宮里遺跡が近年調査され、植物遺体群の研究が待たれるところである。



ベニバナ花粉（纏向遺跡）



ムクゲ花粉（平城京朱雀大路側溝）

고대 유용식물의 이용과 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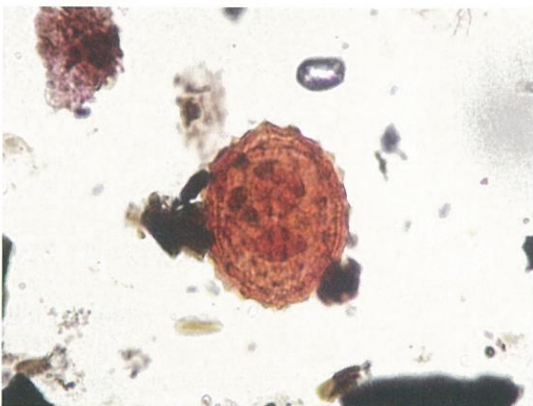
나라교육대학 카네하라 마사아키

일본의 유용식물의 전래는 조몬시대부터 박(표주박)의 씨가 검출되어 문화로써는 야요이시대의 논농사와 더불어 벼의 전래가 시작되었다. 논농사의 전래는 북부큐슈의 이른 야요이시대의 유적군의 시기부터 벼만이 아니라 조, 밀(단립형), 메밀, 복숭아, 매실 그리고 광저기 속(팔모양의)의 재배식물군이 더해져 이러한 식물군이 하나의 문화요소로써 전래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재배식물의 전래는 도작문화의 전래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후의 문화유입과 더불어 몇 번이나 이어지고 있다.

히미코타이코쿠(히미코대국)일 가능성이 점쳐지는 마키무쿠유적에서는 3세기 전반의 홍화(잇꽃)의 화분이 검출, 홍화의 염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화는 염색의 기술과 더불어 전래되었다고 생각된다. 고분시대후반에는 새로운 형태의 복숭아씨가 유적에서 출토되고, 품종이 곱치는 복숭아씨도 출토되기에 이른다. 이는 스에키(토기)의 전래시기와도 겹치고, 스에키의 전래는 새로운 복숭아의 전래를 가져오며 하나의 문화요소가 전래되었다고 보여진다.

7세기부터 8세기에 걸쳐서도 새로운 재배식물의 전래와 식물군 이용의 전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에노미야유적에서는 새로운 대추가 검출되었다. 또 아스카원지苑池유적부터 새롭게 살구가 검출되어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전래되어 복숭아, 매실, 조선오염梧葉, 자두, 배, 감 그리고 홍화와 더불어 일군으로써 이용된다. 이러한 식물은 궁 유적이라고 생각되는 유적이나 수도(首都) 유적에서 검출되며 과일이 주를 이루어, 어떤 것도 비타민의 풍부해 보조적 식량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식물의 이용은 율령제와 관련하여 이용되기 시작한 문화요소라고 여겨진다. 또한 평성경주작대로 측구側溝의 화분 분석에서는 무궁화의 화분이 나와 평성경을 장식하는 꽃으로써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군의 식물의 이용은 대륙으로부터 조선반도(한반도) 경유로 전해졌다고 생각되어지며 7세기 들어서 성립하는 것을 볼 때 백제와의 관련이 크다고 생각된다. 백제에 있어서는 왕궁리유적이 최근 조사되어 식물유체군의 연구가 기대되고 있다.



홍화 화분 (마키무쿠유적)



무궁화 화분 (평성경주작대로측구)

可搬型蛍光 X 線分析装置による彩色材料の同定

佐藤香子・三浦麻衣子・坂上恵梨・広瀬真紀（東京学芸大学大学院修了生）

近年、博物館や美術館、保存現場に分析機器を持ち込み、文化財資料の自然科学的調査が行われている。その際、頻繁に使用される分析方法が可搬型（ポータブル）蛍光 X 線分析である。蛍光 X 線分析法は対象となる資料を破壊せずに、どのような元素が、どの程度含まれているかを知ることができる。また、可搬型蛍光 X 線分析装置は持ち運びが容易であり、資料の大きさに制限されず分析が可能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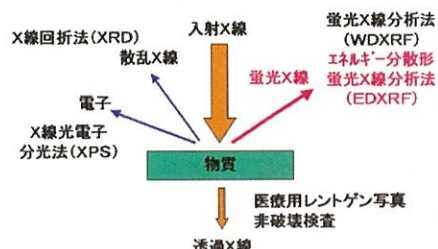


図1 蛍光 X 線分析装置の原理



図2 可搬型蛍光 X 線分析装置
(ペルシア陶器測定の場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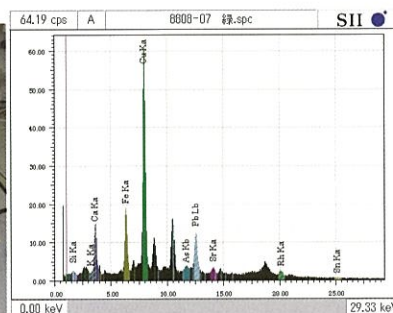


図3 蛍光 X 線スペクトル図
(陶器の釉薬分析の例)

物質に X 線をあてると、X 線と物質との相互作用により、二次的にさまざまな X 線が発生する（図1）。それらの X 線を利用した様々な分析方法が知られている。そのうちのひとつが、蛍光 X 線分析である。X 線を照射することにより物質に含まれる元素に固有の X 線（特性 X 線で蛍光 X 線と呼ばれる）が発生することを利用し、蛍光 X 線分析により、物質に含まれる元素の種類や濃度を知ることができる。

本研究は、このような長を有する可搬型蛍光 X 線分析装置（SII ナノテクノロジー社製 SEA200）による非接触元素分析である（図2）。本装置は、発生された蛍光 X 線を半導体検出器（SSD）で検出し、マルチチャンネルアナライザー（MCA）でエネルギーを選別するシステムである（エネルギー分散型蛍光 X 線分析装置（EDXRF））。得られたスペクトルを解析することにより元素の同定・確認を行う（図3）。

本研究における分析条件は、管球；Rh（ロジウム）、管電圧；50kV、管電流；100 μ A、コリメータ（照射径）；2mm ϕ または 5mm ϕ （資料により選択する）、Si（ケイ素）半導体検出器、測定時間；100～180 秒（一般的な測定時間であるが X 線強度により任意に設定する、計数に伴う誤差に大きく影響する）、装置の X 線照射部と分析対象資料との距離は 5mm～1cm 程度（資料、測定状況により調整する）である。測定箇所の設定は、実体顕微鏡観察、デジタルカメラで撮影した正常光写真および赤外線写真などを参考にする。

可搬型蛍光 X 線分析装置による文化財資料の彩色材料及び関連資料の調査の下記に示したいくつかの実例を報告し、可搬型蛍光 X 線分析による彩色材料の同定についての現状と課題について考察する。

◎荒井 経ほか(2007):狩野芳崖筆「仁王捉鬼」の蛍光 X 線分析による顔料調査報告, 東京学芸大学紀要 芸術・スポーツ科学系, 第59集, pp.43-57

◎小谷野匡子ほか(2008):「職人畫繪」の技法・材料調査, 文化財保存修復学会第30回大会研究発表要旨集, pp.200-201

◎小谷野匡子ほか(2009):菱川師宣筆「江戸名所風俗繪巻」の技法・材料調査, 文化財保存修復学会第31回大会研究発表要旨集, pp.92-93

◎二宮修治ほか(2010):蛍光 X 線分析による泥入間似合紙の材質調査, 文化財保存修復学会第32回大会研究発表要旨集, pp.183-187

◎新免歳靖ほか(2010):ペルシア陶器を科学するPart3-ホルムズ島採集の白地藍彩陶器を中心として-, 『海を渡ったペルシア陶器-17世紀中国・日本・イランの陶磁器貿易-』(中近東文化センター), pp.26-32

가반형 형광엑스선 분석장치에 의한 채색재료의 동정

사토우 쿄코·미우라 마이코·사카가미 에리·히로세 마키 (동경학예대학 대학원 수료생)

최근, 박물관이나 미술관, 보존현장에 분석기기를 도입하여 문화재자료의 자연과학적조사가 행해지고 있다. 이 때, 빈번하게 사용되는 분석방법이 가반형 (포터블) 형광엑스선분석이다. 형광엑스선 분석법은 대상이되는 자료의 파괴없이, 어떠한 원소가, 어느정도 포함되어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가반형 형광엑스선 분석장치는 휴대, 운반이 용이하며, 자료의 크기에 제한없이 분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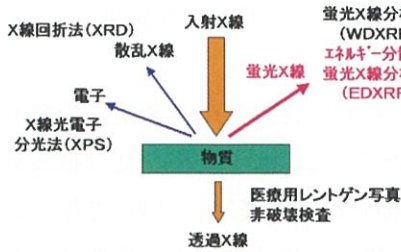


図1 형광엑스선 분석장치의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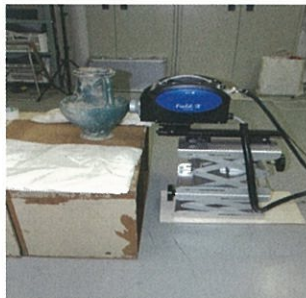


图2 가반형 형광엑스선 분석장치 (페르시아 도기측정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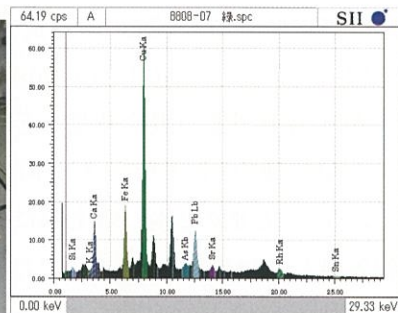


图3 형광엑스선 스펙트럼 도면 (도기의 유약분석의 예)

물질에 엑스선을 조사하면, 엑스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2차적으로 여러가지 엑스선이 발생 한다 (도면 1). 이러한 엑스선을 이용한 여러가지 분석방법이 알려져있다. 그 중 하나가 형광엑스선 분석이다. 엑스선을 조사하는것에의해, 물질에 포함되는 원소 고유의 엑스선 (특성 엑스선 으로, 형광 엑스선 이라고도한다) 이 발생하는것을 이용하며, 형광엑스선 분석에의해 물질에포함된 원소의 종류나 농도를 알수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가반형 형광엑스선장치 (SII 나노테크놀로지사제 SEA200) 에의한 비접촉 원소분석이다 (도면 2). 본 장치는, 발생된 형광엑스선을 반도체 검출기 (SSD) 로 검출하고, 멀티체널 애널라이저 (MCA) 로 에너지를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에너지 분산형 형광엑스선 분석장치 (EDXRF). 그리고 검출된 스펙트럼을 해석함으로써 원소의 동정·확인을 한다 (도면 3).

본 연구에서의 분석조건은, 관구 :Rh (로듐), 관전압 :50kV, 관전류 :100 μ A, 조사경 2mm φ 또는 5mm φ (자료에따라 선택한다), Si (규소) 반도체검출기, 측정시간 :100 에서 180 초 (일반적인 측정시간이지만, 엑스선의 강도에 따라 임의로 설정한다, 계수에 따른 오차에 크게 영향을 준다), 장치의 엑스선 조사부와 분석대상 자료와의 거리는 5mm 에서 1cm 정도 (자료, 측정상황에따라 조정한다) 이다. 측정위치의 선정은, 실체현미경의 관찰,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정상광사진 및 적외선사진등을 참고로 한다.

가반형 형광엑스선장치에의한 문화재 자료의 채색재료 및 관련자료의 조사에대해, 아래에 나타낸 여러 실례를 보고하며, 가반형 형광엑스선분석에의한 채색재료의 동정에대한 현상과 과제에 대해 고찰한다.

◎荒井 経외 (2007) : 狩野芳崖筆「仁王捉鬼」의 형광엑스선분석에의한 안료조사보고, 동경학예대학 기요 예술·스포츠 과학계, 제59집, pp.43-57
 ◎小谷野匡외 (2008) : 「職人盡繪」의 기법·재료조사, 문화재보존수복학회제30회대회연구발표요지집, pp.200-201
 ◎小谷野匡외 (2009) : 菱川師宣筆「江戸名所風俗繪卷」의기법·재료조사, 문화재보존수복학회 제31회 대회연구발표요지집, pp.92-93
 ◎二宮修治외 (2010) : 형광엑스선분석에의한 泥入間似合紙의 재질조사, 문화재보존수복학회제32회대회 연구발표요지집pp.183-187
 ◎新免歳靖외 (2010) : 페르시아 도기를 과학한다Part 3 - 호르무즈섬에서 채집한 백지남채 도기를 중심으로, 『바다를 건넌 페르시아도기-17세기중국·일본·이란의 도자기무역-』 (중근동 문화센터), pp.26-32

扶余定林寺址出土塑像の冠制についての考察

奈良教育大学大学院 修士課程 美術教育専修

山本夏海 (YAMAMOTO Natsumi)

扶余定林寺は、現在の扶余市街のほぼ中央に位置する百濟時代を代表する寺院のひとつである。ここからはおよそ 140 余点の塑像片が出土しており、製作技法や類似作例、設置方法、さらには製作時期や源流をめぐる長い研究史がある。私は今回、定林寺址出土の塑像片のうち小型塑像の一部に冠を着けるものがあることに着目し、中国の塑像・陶俑や絵画にみる冠制から、定林寺址出土塑像の製作時期などを検討したいと思う。

小型塑像のうち少なくとも3体は、円筒形の低い幘を被り、その上に長方形の「籠冠」を載せている。また別の2体の頭上部に戴くものも冠とみるのが妥当である。これは『定林寺址發掘調査報告書』には雙髻とあるが、私はこの表現は髻ではなく、「平巾幘」か「進賢冠」であると考える。

定林寺址出土の籠冠を載せた塑像は、北魏永寧寺（516 年建立）出土塑像との類似が以前から指摘されていたが、南京靈山墓など、南朝のあった地域から出土した陶俑に似ているという報告もある。しかし、定林寺址出土の塑像における籠冠の形状を現在知られている中国における籠冠の形状の変遷から考察すると、いずれの籠冠とも形状が微妙に異なり、冠制から源流を絞り込むのは容易ではない。定林寺出土塑像の籠冠は、北魏永寧寺出土塑像と南京靈山墓出土陶俑との中間に位置するような形状をもつことから、中国南北朝時代（6 世紀）の作例と対応するものと考えられる。

定林寺址出土の平巾幘あるいは進賢冠を載せた塑像は、頭上部が破損しているためにその全貌を把握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が、比較的によく似た冠が中国の陶俑や絵画中にみられる。平巾幘は、もともとは武官の用いる武冠と組になる平上幘であったが、のち形状が変わり、呼称も平巾幘が変わった。6 世紀以降には、この平巾幘に小台を附加してさらに形を変えたものが新たな進賢冠として生まれた。北周の王德衡墓から出土した文吏俑や、固原隋史射勿墓の「執刀武士図」を類似する作例にあげることができる。芝田晋唐墓出土の文官俑（およそ 675 ～ 690 年）にも似た冠を載せるものがある。このように製作年代が最も新しい場合、百濟滅亡後の初唐まで下ることになってしまうため、今後も検討する必要があるが、冠の形状から考えられる製作年代はおおよそ籠冠とも重なる。

『三国史記』や『南史』、『梁書』には、541 年に梁が百濟に工人らを派遣したとの記述があり、これが扶余定林寺の造営及び塑像の製作に直接的に関係しているとの見方もあるが、冠式からみると塑像の製作年代は、541 年よりもう少し下った 6 世紀中葉～7 世紀初め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ただ、541 年の工人らの派遣と、定林寺の造営及び塑像の製作との間に何らかの関わりがあったことは十分にあり得ることである。

부여 정림사지 출토 소상의 관제에 대한 고찰

나라교육대학 대학원 수사(석사) 과정 미술교육전수

야마모토 나쓰미 (YAMAMOTO Natsumi)

부여 정림사는 현재의 부여 시내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사원의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대략 140여점의 소상 조각이 출토되었으며, 제작 기법과 유사작의 예, 설치 방법, 그리고 제작 시기와 원류를 둘러싼 긴 연구의 역사가 있다. 나는 이번에 정림사지 출토의 소상 조각 중 소형 소상의 일부에 관을 쓴 것이 있는 것에 착목해, 중국의 소상과 도용, 회화에서 보여지는 관제로부터 정림사지 출토의 소상의 제작 시기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소형 소상 중에 적어도 세 개는 원통형의 낮은 책을 입고 그 위에 장방형의 「농관」을 쓰고 있다. 또한 다른 두 개의 두상부에 올려져 있는 것도 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정림 사지발굴조사보고서」에는 쌍계로 되어있는데, 나는 이러한 표현은 계가 아니고 「평건축」이나 「진현관」이라고 생각한다.

정림사지 출토의 농관을 엮은 소상은 북위 영녕사(516년 건립) 출토 소상과의 유사성이 이전부터 지적되었지만, 난징 영산묘 등 남조가 있던 지역에서 출토된 도용과도 비슷하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정림사지 출토 소상의 농관 형태를 현재 알려져 있는 중국의 농관 형태 변천으로부터 고찰할 경우, 어느 농관과도 형상이 미묘하게 달라 관제에서 원류를 특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정림사 출토 소상의 농관이 북위 영녕사 출토 소상과 난징 영산묘 출토 도용의 중간에 위치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남북조 시대(6세기)의 작례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정림사지 출토의 평건축, 또는 진현관을 쓴 소상은 두상부가 파손하여 있기 때문에 그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비교적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 관을 중국의 도용과 회화 속에서 볼 수 있다. 평건축은 원래 무관이 사용하던 무관과 세트틀 이루는 평상건이었으나, 후에 형태가 변하고 호칭도 평건축으로 바뀌었다. 6세기 이후에는 이 평건축에 소대(小台)를 붙여 더욱 형태를 바꾼 것이 새로운 진현관으로 탄생했다. 북주의 왕덕형묘에서 출토된 문리용, 고원수사사물묘의 「집도 무사도」를 유사한 작품 예로 들 수가 있다. 지전진당묘 출토의 문관용(대략 675~690년)에도 비슷한 관을 쓴 것이 있다. 이처럼 제작 연대가 가장 최근의 것은 백제 멸망 후의 초당까지와 버리기 때문에 향후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관의 형상에서 생각되는 제작 연대는 대체적으로 농관과 접친다.

『삼국사기』와 『남사』, 『양서』에는 541년에 양나라가 백제에 공인 등을 파견했다는 기술이 있다. 이것이 부여 정림사의 축조 및 소상의 제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관식에서 볼 때 소상의 제작 연대는 541년보다 좀 더 지난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초로 생각된다. 단지, 541년의 공인 등의 파견과 정림사 축조, 소상 제작과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終末期古墳に使用された漆喰の原材料研究

奈良教育大学大学院 修士課程

鶴 真美

Tsuru Mami

漆喰の技術は仏教の伝来とともに大陸から日本に伝わったものと考えられており、古来より多用されてきた。奈良県明日香村では高松塚古墳（7世紀末～8世紀初め）をはじめとする多くの終末期古墳で漆喰が使用されており、7世紀ごろには製造技術はある程度確立されていたと思われる。

漆喰の原材料は石灰岩や貝殻、またはサンゴが主であり、これらを焼成し、麻などの繊維やフノリなどを加え練り上げて作られる。石灰岩や貝殻はカルサイト（方解石）或いはアラゴナイト（霰石）からなり、主成分は炭酸カルシウムである。現在では窯を使い、およそ800℃～1200℃ほどで石灰岩を焼いて製作しているが、古代における漆喰の製造方法については不明な点も多い。

古代の漆喰に関しては、高松塚古墳の壁画保存に関連して様々な分析がなされている。近年の研究からは、漆喰の表面ではカルサイトが再結晶していることがわかっており、これは雨水などが古墳内にしみ込み、表層が溶かされた事が原因と考えられている。同じく明日香村に位置するカヅマヤマ古墳（7世紀後半）からは、漆喰内からカキ殻片が見つかっており、少なくとも一部では貝殻を焼いて漆喰を製作していた可能性が十分にある。しかし図1、図2のように、カヅマヤマ古墳の漆喰片の表面にも結晶がみられ、貝殻特有の微細構造は確認できなかった。



図1 カヅマヤマ古墳漆喰 表面 (S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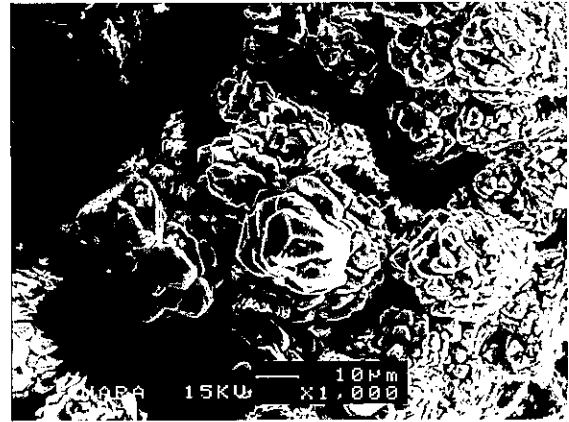


図1 カヅマヤマ古墳漆喰 表面 (SEM)

日本の古墳は百濟をはじめ、新羅や高句麗の影響を強く受けている。漆喰に関しても関連が深いと思われる、双方の漆喰の分析をすすめていくことで新たな知見が得られると考えている。

종말기 고분에 사용된 칠식의 원재료 연구

나라교육대학 대학원 수사 (석사) 과정

쓰루 마미 (Tsuru Mami)

칠식 기술은 불교의 전래와 함께 대륙에서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으며, 옛부터 자주 이용되어 왔다. 나라현 아스카무라에서는 다카마쓰즈카 고분 (7 세기말 ~8 세기 처음) 을 비롯한 많은 종말기 고분에서 칠식이 사용되고 있어 7 세기 경에는 제조 기술이 어느정도 확립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칠식의 원재료는 석회암이나 패각, 산호가 주를 이루며, 이것들을 고온에서 구워 마 등의 섬유와 청각채 등을 첨가해 반죽해서 만들어진다. 석회암과 패각은 카르사이트 (방해석) 나 아라고나이트 (산석) 로 되어 있으며 주성분은 탄산칼슘이다. 현재는 가마를 사용해 대략 800°C ~1200°C 정도에서 석회암을 구워 제작하고 있으나, 고대의 칠식 제조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적지 않다.

고대의 칠식에 관해서는, 다카마쓰즈카 고분의 벽화 보존과 관련해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칠식의 표면에 카르사이트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이것은 빗물 등이 고분 내에 스며들어 표층이 녹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스카무라 에 위치한 가즈마야마 고분 (7 세기 후반) 에서는 칠식 안에서 굴껍질 파편이 발견되어, 적어도 일부 에서 패각을 구워 칠식을 제작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진 1 과 사진 2 에서 처럼 가즈마야마 고분의 칠식 조각의 표면에도 결정이 보여지며, 패각 특유의 미세 구조는 확인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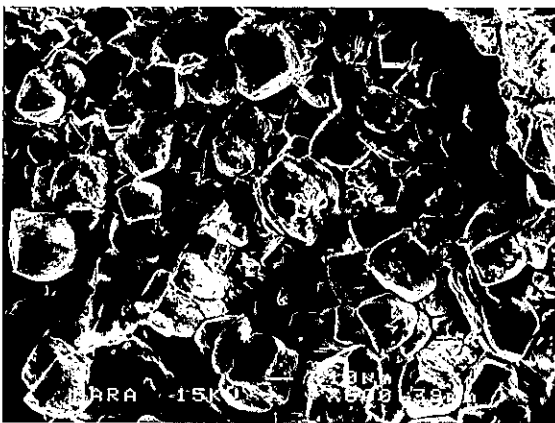


사진 1 가즈마야마 고분 칠식 표면 (S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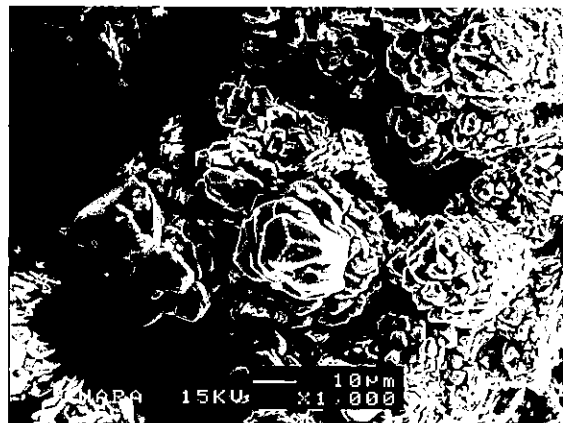


사진 1 가즈마야마 고분 칠식 표면 (SEM)

일본의 고분은 백제를 비롯해 신라와 고구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칠식에 관해서도 깊은 연관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쌍방의 칠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考古学からみた百済と倭

—装身具をめぐる問題を中心として—

吉井秀夫（京都大学）

The Relationship between Paekche and Wa viewed from the archaeological artifacts:
centering around the excavated jewelry

Yoshii Hideo (Kyoto University)

1 百済装身具の特徴

5世紀以降、日本の古墳からは、金・銀・金銅で製作された冠・耳飾・帯金具・飾履・頸飾・指輪・腕輪などが出土する。特に6世紀には、奈良県の藤ノ木古墳に代表されるような豪華な装身具が副葬される古墳が、日本各地で知られている。こうした金属製装身具の起源が朝鮮半島にあることは、戦前に日本人が朝鮮半島各地で発掘調査をおこない、金冠をはじめとする多様な装身具を発見したことにより、広く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中でも新羅の王都であった慶州の大型古墳からは、5世紀後半を中心としてさまざまな金属製装身具が出土することが知られている。洛東江以西地域に分布する加耶諸国の古墳からは、新羅のものとは意匠がやや異なる、冠や耳飾りなどの金属製装身具が出土することが知られている。

百済においては、公州・宋山里古墳群に属する武寧王陵から発見された装身具が最も有名である。しかしそれ以外の古墳からの金属製装身具の出土例は限られており、特に公州に王都が移される475年以前の例はほとんど知られていなかった。ところが、韓国各地で発掘が盛んに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に伴い、百済領域内の各地の古墳から、冠や飾履などの金属製装身具が出土する例が増加している。例えば、公州市・水村里遺跡からは、計5基の木槨墓や横穴系石室墓から、中国製陶磁器や環頭大刀などと共に、冠・飾履・耳飾などが発見され注目をあびた。これらの出土例を通して、百済の金属製装身具には以下のような特徴があることがわかってきた。

まず冠の場合、烏帽子のような形をした冠（冠帽）に、装飾板や、屈曲した棒の先に半球状の金具がついた金具が取り付けられるのが特徴的である。冠帽側面の装飾には、火焰文＋龍文・三葉（二葉）文・亀甲繫文などが透彫された例と、打出技術を用いて魚鱗文・唐草文などが表現された例が知られている。

飾履は、2枚の側板をつま先とかかとで固定し、スパイクがつけられた底板を組み合わせてつくられている。公州に王都がおかれた時期につくられた例のうち、武寧王と武寧王妃の飾履は、亀甲繫文が透彫された金銅板の内側に銀板を組み合わせている。同時期の他の古墳から出土した例では、打出技法を用いて亀甲繫文や斜格子文が表現されている。ところが、475年以前にさかのぼりうると考えられる例には、凸字文・龍文・亀甲繫文などが透彫で表現されたものが多いことがわかってきた。

こうした冠や飾履は、漢江中流域の原州、錦江流域の益山・公州・天安、全羅北道西海岸の高敞、栄山江流域の羅州、南海岸の高興などに分布する。これらの出土地は、百済の中心であった漢城と周辺諸地域とを結ぶ、交通の要所や各地域の拠点に当たる。副葬品としては、中国製

陶磁器・環頭大刀・馬具などが共伴する例が多い。これらの遺物は、百済中央勢力が中国から入手したり、独占的に製作したもの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る。一方、古墳の埋葬施設をみると、木槨・竪穴式石槨・横穴式石室と多様であり、これらの古墳は、各地域における在地首長の墓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このことから、装身具をはじめとする百済系の文物の広がりや、当時の百済中央勢力と各地の在地勢力との政治的な結びつきを示していると考えられている。

2 日本の装身具との関係

次に、百済の金属製装身具に対する新知見が、日本の装身具研究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ているのかについて検討してみよう。まず、百済の金属製装身具の類例増加と共に、再びその存在意義が注目されているのが、熊本県江田船山古墳出土冠帽である。冠帽全体の形状、火焰文と龍文の透彫、屈曲した管と半球状金具が組み合わされた装飾などにみられる特徴は、百済でみつけた冠帽と共通する。また、冠帽下縁に残る金銅板片は、百済での出土例と同様、冠帽の側面に装飾板がつけられ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江田船山古墳出土冠は、百済での出土例とくらべても精巧につくられた冠であると評価できる。

日本列島で出土した飾履は、後述する群馬県・谷ツ古墳出土例を除けば、いずれも2枚の側板をつま先とかかとで固定する構造をもち、百済の飾履の影響を受けたことは明らかである。日本出土例はさらに、熊本県・江田船山古墳出土例のように、つま先とかかかとを鉾で固定し、底板にスパイクが付き、文様に崩れがない例と、滋賀県・鴨稻荷山古墳出土例や奈良県・藤ノ木古墳出土例のように、つま先とかかかとを銅線（銅線）で固定し、底板にスパイクがつかず、文様がくずれた例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また両者は、側板の展開形において明らかな違いがある。前者は、百済からの舶載品、もしくは百済飾履の技術により日本で製作されたものであると考えられるのに対して、後者は百済飾履を模倣して製作されたものであると考えられる。

また、日本出土の冠や飾履のうち、火焰文・龍文・二葉文などが透彫された例については、百済との関係について再検討が必要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例えば、かつて冠帽であると報告された福井県・十善の森古墳出土金銅板片は、一部研究者により指摘されてきたように、火焰文と龍文が透彫された飾履の一部である可能性が高い。また、特異な構造であるためにこれまであまり注目されてこなかった、群馬県・谷ツ古墳出土飾履も、透彫文様の特徴などからみれば、百済の冠や飾履との関係を再検討する必要がある。日本に特有の冠とする評価が一般的である二山広帯形冠には、百済の冠や飾履と共通する文様をもつ例が少なくない。全羅南道・咸平新徳1号墳から二山広帯形冠の破片と思われる金銅板が出土していることも含め、百済の装身具が日本に与えた影響については、今後さらに検討される必要があるだろう。

고고학을 통해서 본 백제와 왜

- 장신구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

吉井秀夫(京都大學)

The Relationship between Paekche and Wa viewed from the archaeological artifacts:
centering around the excavated jewelry

Yoshii Hideo (Kyoto University)

1 백제 장신구의 특징

5세기 이후 일본 고분에서는 금, 은, 금동으로 만들어진 관, 귀걸이, 허리띠, 신발, 목걸이, 반지, 팔찌 등이 출토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6세기의 일본 각지에서는 奈良縣 藤木(후지노키) 고분처럼 다양한 금속제 장신구가 부장된 고분이 축조되었다. 이러한 금속제 장신구의 기원이 한반도에 있음은, 일본인 고고학자가 식민지시대에 한반도 각지를 발굴조사해서 금관을 비롯한 다양한 장신구를 발견함으로써 잘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신라의 왕도였던 경주의 대형고분에는 5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금속제 장신구가 부장되었다. 또 낙동강 이서지방에 분포하는 가야 제국의 고분에서도 신라와는 의장이 다른 관 및 귀걸이 등이 출토되었다.

백제의 경우는 공주시 송산리고분군의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장신구가 가장 유명하다. 그런데 다른 백제고분에서 금속제 장신구가 출토된 예는 한정되어 있다. 특히 공주에 왕도가 옮겨진 475년 이전의 예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발굴조사가 늘어나면서 백제 영역내 각지의 고분에서 관과 신발을 비롯한 금속제 장신구의 출토예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공주시 수촌리유적에서는 5기의 목곽묘와 횡혈계 석실묘에서 중국제 도자기, 환두대도와 함께 관, 신발, 귀걸이 등이 발견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들 출토예를 통해 볼 때, 백제의 금속제 장신구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의 경우 고깔모양의 본체(관모)에 문양판이나 꽃봉오리 모양의 장식이 조합된 것이 특징이다. 관모 측면에는 불꽃무늬와 용무늬, 삼엽(혹은 이엽)무늬, 거북등무늬 등이 투조된 예와 물고기비늘무늬, 당초무늬 등이 타출기법으로 표현된 예가 알려져 있다.

신발은 두 장의 측판을 발등쪽과 발뒤꿈치쪽에서 고정한 후, 스파이크가 있는 바닥판과 조합해서 만들었다. 공주에 왕도가 있었던 시기에 제작된 예 가운데 무령왕과 무령왕비의 신발은 거북등무늬가 투조된 금동판의 안쪽에 은판을 조합해서 만들어졌다. 같은 시기의 다른 고분에서 출토된 예는 거북등무늬나 사격자무늬가 타출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475년보다 올라갈 수 있는 예에는凸자무늬, 용무늬, 거북등무늬 등이 투조된 예가 일반적임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관과 신발이 출토된 백제고분은 한강유역의 원주, 금강유역의 익산, 공주, 천안, 전라북도의 고창, 영산강유역의 나주, 남해안지역의 고흥 등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백제의 중심지인 한성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상의 요지나 각 지역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곳에 분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장품으로는 중국제 도자기, 환두대도, 마구가 함께 출토된 경

우가 많다. 이들 유물은 모두 백제 중앙세력이 중국에서 입수하거나, 독자적으로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고분의 매장시설을 보면, 목관, 수혈식석곽, 횡혈식석실 등 다양하며, 이들 고분은 각 지역의 재지수장의 무덤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금속제 장신구를 비롯한 백제계 문물의 분포는 당시의 백제 중앙세력과 각 지방세력과의 정치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여겨진다.

2 일본 출토 장신구와의 관계

다음으로 이상과 같은 백제 금속제 장신구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일본의 금속제 장신구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백제 금속제 장신구의 발견예가 늘어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유물이 熊本縣 江田船山(에다후나야마)古墳에서 출토된 관모이다. 관모 전체의 모습, 불꽃무늬와 용무늬의 투조, 꽃봉오리 모양의 장식 등의 특징은 백제의 관모와 거의 같다. 또 관모 하단에 남아 있는 금동판편은 백제 출토예에서 보이는 장식판의 흔적일 것이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니, 江田船山高분에서 출토된 관은 백제고분에서의 출토예와 비교해 보더라도 잘 만들어진 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신발은 후술할 群馬縣 谷ツ(야쓰)고분 출토예를 제외하면, 두 장의 측판을 발등쪽과 발뒤꿈치쪽에서 고정하는 것으로, 백제 신발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일본 출토예는 江田船山高분에서 출토된 예와 같이 두 장의 측판을 발등쪽과 발뒤꿈치쪽에서 못으로 고정시키고, 바닥판에 스파이크가 있고, 문양이 잘 새겨져 있는 것과 滋賀縣 鴨稻荷山(가모이나리야마)고분과 藤木고분에서 출토된 예와 같이 두 장의 측판을 발등쪽과 발뒤꿈치쪽에서 동선으로 고정시키고, 바닥판에 스파이크가 없고, 새겨진 문양에 불규칙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뉜다. 또 양자는 측판을 전개한 모습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전자는 백제에서 가져왔거나 백제의 기술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후자는 백제 신발 모방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일본에서 출토된 금속제 장신구 가운데 불꽃무늬, 용무늬, 이엽무늬가 결합되면서 투조된 예는 백제와의 관계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과거에는 관모라고 보고된 바가 있는 福井縣 十善森(주젠노모리)고분에서 출토된 금동판편은 일부 연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불꽃무늬와 용무늬가 투조된 백제계 신발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또 특이한 구조 때문에 주목으로 받지 못했던 谷ツ고분에서 출토된 신발도 투조된 문양의 특징으로 보아, 백제계 관 및 신발과의 관계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자료이다. 그리고 종래 일본의 독자적인 관으로 평가되어 온 二山廣帶式 관의 문양을 보면, 백제계 관이나 신발과 유사한 경우가 적지 않다. 전라남도 함평 신덕1호분에서 이산광대식 관이라고 추정되는 금동판이 출토된 것과는 관련시키면서, 백제계 장신구가 일본 장신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第2日目 12月11日(土)

9:30 - 11:50 講演Ⅱ

百濟と東大寺

東大寺長老・東大寺学園理事長・奈良県教育委員長 上野 道善

文献から見た百濟と倭

滋賀県立大学 人間文化学部 教授 田中 俊明

熊津・泗泚期の百濟文化

公州大学校 教授 李 南 爽

제 2 일째 12 월 11 일 (토)

9:30 - 11:50 강연Ⅱ

백제와 동대사

동대사장노・동대사학원이사장・나라현교육위원장 우에노 도젠

문헌에서 본 百濟와 倭

시가현립대학 인간문화학부 교수 다나카 도시하루

熊津・泗泚期の 百濟文化

공주대학교 교수 이 남석

百済と東大寺

東大寺長老・東大寺学園理事長・奈良県教育委員長 上野 道善

東大寺の本尊、大仏さまは百済から仏教が伝えられたという年から200年という節目、752年4月9日に開眼されました。仏教が百済から伝えられてから、200年という年を意識して開眼の年を設定したためか、開眼当日には仏さまへの鍍金は全身まで出来ておらず、お顔のみの鍍金であったといわれています。

大仏の造立には百済から渡ってきた方々の子孫が深く関係されています。

国中公麻呂（くになかのきみまろ、(国中連公麻呂（くになかのむらじ きみまろ）国君麻呂（くになかのきみまろ）とも）が大仏師として記録されています。この人は「元百済国人」と書かれ、徳率国骨富（とくそつこくこつぶ）の孫とされています。大仏さまに鍍金をする金については百済王の子孫で、陸奥守であった百済王氏の敬福（きょうふく）が東大寺に金を寄進しています。

大仏の造立には百済に関わりのある方々と非常に深いつながりがあり、これを象徴するように現在でも東大寺境内に辛国社という小さな祠があります。辛国社は、辛国の字からも推測できますように大仏の造立に関与した国中公麻呂や敬福など百済系の人を祀っているとされ、いつまでも大仏殿や大仏さまを百済の方々が見守ってくださるのです。

백제와 동대사

동대사장노 · 동대사학원이사장 · 나라현교육위원장 우에노 도젠

동대사의 본존인 대불(님)은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해졌다고하는 해로부터 200년이라는 세월이 되는 752년 4월 9일에 개안되었습니다. 불교가 백제에서 전래된지, 200년이라는 해를 의식해서 개안하는 해를 정했기 때문인지, 개안당일에는 대불의 도금은 전신에 이르지 못하였고, 얼굴만 도금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불의 조립에는 백제에서 건너온 여러분들의 자손이 깊게 관여했다고 되어있습니다.

國中公麻呂쿠니나카노키미마로, 國中連公麻呂쿠니나카노무라지키미마로, 國君麻呂쿠니노키미마로 등이 대불사로서 기록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元百濟國人]이라고 쓰여져 있어, 德率國骨富토쿠소쓰코쿠콧뿌의 자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대불에 도금하는 금에 대해서는 백제왕의 자손으로, 陸奥守이었던 백제왕민의 경복敬福이 동대사에 금을 기증하였습니다.

대불의 조립에는 백제와 관계가 있는 분들과 대단히 깊은 관련이 있고, 이것을 상징하듯 현재에도 동대사 경내에는 辛國社라는 작은 사당이 있습니다. 辛國社는 신국이라는 글자에서도 추측하듯이 대불의 조립에 관여한 쿠니나카노 키미마로나 敬福등의 백제계 분을 모시고 있다고 되어있으며, 언제까지고 대불전이나 대불(님)을 백제의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으실 것 입니다.

文献からみた百済と倭

Relation between Pekuche 百済 and Wa 倭 seen from historical materials

田中俊明 (滋賀県立大学)

○百済と倭の同盟成立 —4世紀

360年代

高句麗と敵対する百済 南方に友好勢力を求める

百済—加耶南部との関係成立

倭は、それ以前から加耶南部（金官国）との関係

加耶南部が仲介をするかたちで、百済—倭の同盟が成立

百済は中国の東晋と通交

東晋—百済—加耶南部—倭 という連携ラインが成立

それは、前秦—高句麗—新羅、という北方連携ラインと対立

「七支刀」は、百済から同盟成立を記念して贈られる。

「広開土王碑」には、百済・加耶南部と友好的な関係にあり、高句麗と対抗する倭の姿がみられる。



○倭の五王の時代 漢城百済の滅亡 —5世紀

倭も、百済にならって南朝（宋）と通交

倭王は、都督百済諸軍事号を宋に要求 → 宋は拒否（宋

中国南朝による「東夷」百済・高句麗・倭三国王将軍補任表

王朝名	東晋				宋								齊				梁				陳								
将軍号	西曆	三七二	三六六	四一三	四一六	四二〇	四二二	四三〇	四三八	四四三	四五一	四五七	四六二	四六三	四七八	四七九	四八〇	四九〇	四九四	?	五〇二	五〇八	五二〇	五二二	五四	五六	?	五四八	五六二
驃騎大																	△												
驃騎																													
車騎大														△								△							
車騎																						△							
征東(撫東)大						△																○	△						○
征東(撫東)			▲																			□				△			
鎮東(寧東)大					○		●									□	●	●						●					
鎮東(寧東)		●	●	●																				▲		▲	▲	▲	▲
安東(威東)大																													
安東(威東)						■		■	■																				
平東(綏東)																								●					
百済王名	餘句	餘暉	餘映			餘毗				餘慶						牟都	牟大						餘隆	餘明					
高句麗王名	璉																												
倭王名						讚	珍	濟		興											雲		安		延		成	湯	

将軍号は上からランクの順。()内は梁・天監7年(508)の新官制における外国用将軍号。●○は百済王、▲△は高句麗王、■□は倭王がそれぞれの将軍号を与えられたことを示す。●▲■は初任時、○△□は昇進時のものである。初任時の下欄に王名を付記する。この時期、「東夷」においてはほかに、479年に加羅国王が輔国将軍とされているのみである。新羅も南朝に遣使することはあったが、冊号は受けなかった。上表をみれば、高句麗→百済→倭の順にランクづけしていたことがわかる。こうしたランクづけは、南朝の対北朝戦略と深い関係をもっていた(坂元義種説)。

は百済を上(に評価)

442年 倭が加耶南部との連携のもと、内陸の大加耶へ侵攻 → 大加耶王は、百済に救援を求める → 百済が大加耶を復興 (▲倭とは利害対立)

この前後の時期、百済からの渡来人多し(武寧王生まれる。昆支の渡倭)

475年 王都漢城陥落、王殺害され、百済いったん滅亡 → しばらくして、熊津(公州)で再興

『日本書紀』では、雄略が、東城王(末多王)を立てた、



とするが、それには問題がある。東城王は、文周王（牟都）の孫。祖父が自分の後継者として孫を立てたと考えるべき。

○百濟先進文化の流入 —6世紀

百濟の全羅南道進出（馬韓残存勢力制圧） 前方後円墳

百濟の加耶進出

先進の学問・技術を送ってきて、かわりに兵力を求める

五経博士段楊爾（継体紀7年条）

五経博士漢高安茂（継体紀10年条）

扶南財物（欽明紀4年条）

東城子言（欽明紀8年条）

釈迦仏金銅像一軀・幡蓋若干・経論若干卷（欽明紀13年条）

医博士・易博士・曆博士等（欽明紀14年条）

固徳馬丁安・僧道深等七人（欽明紀15年条）

徳率東城子莫古・五経博士王柳貴・僧曇慧等九人（同上）

易博士施徳王道良・曆博士固徳王保孫・医博士奈率王有葱陀・採薬師施徳潘量豊・固

徳丁有陀・楽人施徳三斤・季徳己麻次・季徳進奴・対徳進陀（同上）

541年～544年 いわゆる「任那復興会議」

百濟は、安羅を引き留める。倭は、安羅の意向を重視（▲倭と利害対立）

結局、安羅は新羅に降る。562年、残る加耶諸国も新羅へ。

○百濟の滅亡 —7世紀

642年 百濟・高句麗と同盟

→百濟と友好的倭は、その同盟側に加わる 新羅・唐と対立へ

660年 唐・新羅連合軍、百濟王都に侵攻、攻め落とし、王が降伏（百濟滅亡）

すぐに復興運動が起こり、倭にいた王子豊璋が呼び戻され王として擁立
倭も、軍事的支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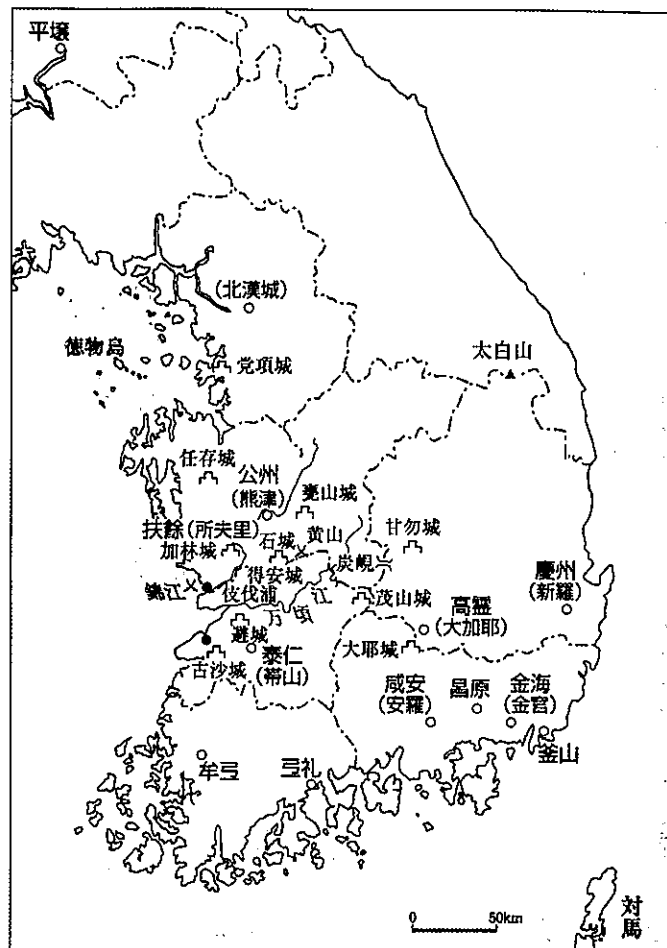
663年 白村江の戦いで倭の水軍全滅。

『旧唐書』卷84・列傳第34・劉仁軌

是に於て仁師・仁願及び新羅王金法敏、陸軍を帥いて以て進み、仁軌乃ち別に杜爽・扶餘隆を率い、水軍及び糧船を率い、熊津江より白江に往き、陸軍に會し、同に周留城に趣く。仁軌、倭兵に白江口に遇い、四たび戦い皆な捷つ。其の舟四百艘を焚き、煙焰天に漲る。海水皆な赤し。賊衆、大いに潰ゆ。

周留城の戦いで、復興軍破れ、倭に王族・貴族が亡命

→倭国内で、百濟王氏が存続



滅亡前後の百濟とその周辺図

문헌에서 본 百濟와 倭

다나카 도시하루

○ 百濟와 倭의 동맹 성립 —4 세기

360 연대

高句麗와 적대하는 百濟 남방에 우호 세력을 구한다

百濟 —加耶남부의 관계 성립

倭는, 그보다 앞이나 加耶南部(金官國)과의 관계

加耶남부가 중개해서 百濟—倭의 동맹이 성립

百濟는 중국의 東晉과 통교

東晉—百濟—加耶南部—倭라고 하는 연휴 라인이 성립

그것은, 前秦—高句麗—新羅라고 하는 북방 연휴 라인과 대립

「七支刀」는, 百濟에서 동맹 성립을 기념해서 보내진다.

「광개토왕비」에는, 百濟·加耶南部와 우호인 관계에 있고, 高句麗라고 대항하는 倭의 모습이 볼 수 있다.

○ 倭의 五王 시대 한성 백제의 멸망 —5 세기

倭도, 百濟가 되어서 남조(宋)과 통교

왜왕은, 도독백제제군사 호를 송에게 요구 → 송은 거부(송은 백제를 위에 평가)

442년 倭 加耶南部와의 연휴 아래, 내륙의 大加耶로 침공 → 大加耶王은, 百濟에 구원을 요구하는 → 百濟가 大加耶를 부흥(▲倭과는 이해 대립)

일전 후의 시기, 백제에서의 도래인 많은(무령왕 태어난다. 곤지의 渡倭)

475년 왕도 한성 함락, 왕 살해되고, 백제 일단 멸망

→ 잠깐 해서, 熊津(公州)로 재흥

『일본서기』로서는, 雄略이 東城王(末多王)을 세운, 로 하지만, 그것에는 문제가 있다. 東城王은, 文周王(牟都)의 손자. 할아버님이 자기뒤 계자로서 손자를 세웠다고 생각해야 한다.

○ 百濟 선진 문화의 유입 —6 세기

百濟의 전라남도 진출(말한 잔존 세력 제압) 前方後円墳

百濟의 加耶진출

선진의 학문·기술을 보내고 와서, 대신에 병력을 구한다

오경박사 단양이(繼體紀 7년조)

오경박사 한고안무(繼體紀 10년조)

부남 재산(欽明紀 4년조)

東城子言(欽明紀 8년조)

釋迦仏금동상 1軀·번……(欽明紀 13년조)

医博士·藥博士·曆博士들 (欽明紀 14 년조)

固德馬丁安·僧道深등 7 명 (欽明紀 15 년조)

德率東城子莫古·五經博士王柳貴·僧曇慧등 9 명 (전술)

易博士施德王道良·曆博士固德王保孫·医博士奈率王有惹陀·採藥師施德潘量豐·固德丁有陀·樂人施德三斤·季德己麻次·季德進奴·对德進陀 (전술)

541 년~ 544 년 이른바 「임나 부흥회의」

百濟는, 安羅를 붙든다. 倭는 安羅의 의향을 중시 (▲倭와 이해 대립)

결국, 安羅는 新羅에게 내린다. 562 년, 남는 加耶제국도 新羅에게.

○ 百濟의 멸망 —7 세기

642 년 백제 고구려와 동맹

→ 백제와 우호 倭는, 그 동맹측에 가해진다. 新羅·唐과 대립으로

660 년 당·신라 연합군, 백제왕도에 침공, 공략, 왕이 항복 (백제 멸망)

인차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倭에 있었던 왕자 豐璋가 소환시켜지고 왕으로서 응립
倭도, 군사적 지원.

663 년 白村江의 싸움으로 倭의 해군 전멸.

『구당서』 卷 84 열전제 34 劉仁軌

周留城의 싸움으로, 부흥군 깨지고, 倭에 왕족·귀족이 망명

→ 왜 국내에서, 百濟王씨가 존속

熊津 · 泗泚期の 百濟文化

李南奭 (公州大 史學科)

1. 百濟文化는 ?

文化가 人間行爲의 總合을 意味할 때 百濟文化는 百濟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나라의 情趣가 스며있는 有 · 無形의 遺産일 것이다. 百濟는 漢江流域에서 시작하여 700여년간 興亡盛衰를 거듭하다가 錦江流域에서 國家의 運命을 다한 古代國家이다. 비록 韓半島 서남쪽의 좁은 지역에 자리하였지만 地政學的 條件에 힘입어 文化強國의 면모를 유감없이 發揮하였고, 東아시아 古代文化 형성의 밑그림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물론 이후에 고유한 韓國文化 발전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百濟文化의 우수성은 그들이 남긴 흔적의 면면에 깊게 배어져 있다. 中國의 先進文化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나름의 消化 · 融合을 통해 자기 것으로 훌륭하게 再創造하기도 한다. 물론 주변에 널리 전파함으로써 東아시아 古代文化의 창달 및 媒介者의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百濟는 東아시아 古代文化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국가로 평가될 수 있다. 자기 文化發展을 위해 先進文化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의 소화와 재창조에 비범한 力量을 발휘하는 나름의 고유한 文化感覺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百濟는 敗亡國이기에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體驗 · 認知하기에 한계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古代文化 발전에 기여한 역할이나 위상이 결코 범상치 않았음에도 체험할 역사적 실상은 오히려 짙은 베일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敗亡國이기에 그들의 文化資產은 勝戰國에 의해 철저히 유린될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 지하 깊숙이 埋沒된 처절한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남겨진 역사 실상도 勝戰國의 손에 철저히 裁斷되어 그들의 口味에 맞게 料理되었기에 敗亡國의 眞實보다는 屈折과 歪曲된 사실만이 남겨졌을 뿐이다.

百濟人의 文化力量이 유감없이 발휘된 흔적들은 그들의 疆域은 물론 東아시아 到處에서 발견된다. 敗亡國이기에 철저히 유린되고 매몰되었음에도 간간히 발견된 文化遺産의 실체들은 가히 名品 중에 名品이다. 漢城 都邑시절의 政治 · 社會 실상을 雄辯하는 金銅冠帽과 金銅飾履, 遷頭大刀와 같은 威勢品은 그들의 文化力量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尺度이다. 최근의 風納土城 出土品 등은 百濟文化가 일찍부터 國際性을 겸비하였고 성장을 위한 多元的 基盤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錦江流域에서 展開된 百濟文化는 漢江流域에서 마련된 多樣性에 기초하여 보다 進一步되기에 이제 韓國 古代文化의 精髓로 분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 武寧王陵에 나타난 國際性, 瑞山 磨崖佛의 정경고 신비스런 미소에 集約된 百濟人의 情緒, 그리고 彌勒寺塔과 定林寺 塔을 통해본 그들의 創造性, 陵寺出土 金銅大香爐에 집약된 百濟文化의 優秀性 등은 오히려 단적인 사례에 불과한 것들이다.

이처럼 우수한 百濟文化의 현주소도 단기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百濟라는 古代國家의 오랜 歷史 過程에서 남겨진 產物일 뿐이다. 사실, 百濟는 紀元前後한 시기에는 漢

江流域에 자리하였던 三韓의 小國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地政學的 立地條件에 민첩하게 적응하고, 나름의 發展戰略을 驅使하여 남보다 앞서 發展街道를 마련한 것이다. 그들은 變化無雙한 國內外 情勢에 能動的으로 대처하며 나름의 國家 生存戰略을 훌륭하게 구사한 결과 國家發展을 이룩하고 그 과정에 獨創的 文化基盤도 構築한 것이다.

475년 高句麗의 漢城侵攻은 王의 敗死만이 아니라 都邑의 철저한 破壞를 가져왔고, 오랫동안 構築된 漢江流域의 社會·文化的 基盤의 철저한 崩壞로 이어졌으나 熊津遷都를 기회로 國家的 危機는 相生속에 溫存된 地方社會의 役割로 克服되고 새로운 錦江流域 時代를 개막한다. 錦江流域時代의 개막은 이전보다 進一步한 熊津·泗泚時代의 百濟文化가 재창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 熊津·泗泚文化의 孕胎 - 多樣性 基盤의 構築

『三國史記』의 기원 18년 百濟建國 사실은 기록적 실상일 뿐이다. 文化相을 토대로 漢江流域의 古代國家 百濟의 確認은 적어도 3세기 후반 경에나 가능하다. 이는 百濟가 三韓 小國의 범주에 머물다가 3세기 후반 경에 古代國家로 발돋움하였고 그 실상이 물질 文化面에 반영되어 오늘에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3세기 후반경에 百濟가 古代 國家的 體制를 갖추게 된 것도 기왕에 漢江流域을 중심으로 전개된 發展力과 함께 3세기 후반, 북쪽의 郡縣社會의 變化와 無關할 수 없다.

3세기 무렵 中國社會가 三國의 混亂·分裂期에 접어들면서 郡縣에 대한 統制力도 弛緩되어 결국은 郡縣自體가 消滅되기에 이른다. 군현의 소멸은 기왕에 羈縻政策 체제하에 安住하던 한반도 三韓社會의 이합집산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를 기회로 지정학적 우위에 있던 百濟는 帶方과의 相關속에 세력을 형성하는가 하면, 對 中國 交涉의 優位權 確保, 이를 통한 文物媒介의 主導, 나아가 政治的 統制까지 進行하여 韓半島 南部는 물론 倭 지역까지 그들의 영향권에 넣었을 것이다. 百濟의 古代國家로서 위상 확립이 古爾王代에서 近肖古王代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를 대변하는 것이다.

4세기 무렵의 동아시아의 문화상이 가장 力動的으로 變化·변천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以前과는 다른 高塚 古墳이 등장하는가 하면, 鐵製 武器의 확대라던가 騎馬文化의 확대 보급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지방사회의 발전이 가속화된다. 그리고 變化의 배경으로 郡縣의 消滅, 高句麗, 百濟의 古代國家 浮上이라는 사실 외에 크게 주목할 것이 없기에 變化의 동인으로 백제의 부상을 주목하는 것이다. 4세기 전반 무렵의 百濟는 古代國家體制의 鼎立과 對中國 交涉의 獨占權 確立을 기회로 그들의 영향력을 한반도 남부지역은 물론 일본열도까지 확대하여 이 지역의 政治·社會·文化의 中心國으로 자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百濟의 漢城 都邑時期 國家體制는 中央과 地方의 二元的 구조 속에 운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文化基盤도 오히려 中央을 媒介로 地方文化의 발전이 도모되는 二元的 면모가 발견된다. 이는 당시 百濟 中央의 地方통제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漢城 都邑 시기의 地方統制는 답로체제로 특징되는 中央과 地方간의 느슨한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地方社會는 中央의 政治力이 깊게 스며있음에도 불구하고 社會·文化的으로 獨自性이 상당정도 유지되고 있음이 물질문화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漢城 都邑期 百濟의 文化實狀을 추정할 수 있는 遺蹟은 많다. 그중에서도 墳墓遺蹟은 中

中央과 地方과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都邑地域에서 基壇式 積石塚이 盛行하는 와중에 橫穴式 石室墳이 유입되어 그들의 중심 墓制로 사용된다. 반면에 地方社會는 都邑地域과는 달리 土壙墓, 墳丘墓, 周溝土壙墓, 甕棺墓, 石槨墓 등이 성행하면서 그 속에 橫穴式 石室墳이 間歇적으로 등장하는 情狀이 연출이 그것이다. 여기에 高塚古墳의 造營環境, 威勢品 副葬의 共通性이라던가 橫穴式 石室墳의 擴散環境에서 中央과 地方과의 有機的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분묘에 부장된 中國製 瓷器는 百濟의 先進文物 輸入과 再分配의 樣相을 標識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百濟는 섭취한 先進文化를 결코 그들만의 것으로 獨占 享有하지 않고, 이를 널리 보급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데 文化力量이나 先進文物 수수관계의 正統은 政治的 相關性이 前提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면 百濟社會에서 先進文化가 주변으로 供給되는 環境도 결국 威勢品の 賜與라는 政治的 環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威勢品으로 여겨지는 각종 金銀細工品이 地方社會에서 폭넓게 發掘되어 있고, 金銅冠帽, 金銅飾履, 還頭大刀 등과 같은 威勢品은 地方에서는 생산될 수 없는 高級品으로 中央에서 賜與된 것들이다. 결국 政治的 權威를 나타내는 이들 威勢品の 授受를 통해 백제는 中央과 地方의 主從關係가 형성되었다고 봄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威勢品の 존재는 고급스런 中央文化가 地方에 供給되는 動機 및 過程을 보여주면서 이를 기회로 地方社會가 中央과 상생·발전할 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도 알게 한다.

百濟의 漢城 都邑期 文化實狀은 先進文化 수용과 재창조 그리고 再分配 過程을 통한 地方 文化의 발전이란, 즉 中央과 地方文化 발전의 相生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漢城都邑 시기는 百濟가 中央과 地方으로 社會秩序가 二元化되었음과, 그에 수반된 文化特性도 中央과 地方의 이원적 속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環境은 熊津으로 遷都하면서 커다란 變化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

3. 熊津·泗泚文化의 展開 - 古代文化의 꽃

百濟의 熊津遷都는 高句麗 侵攻이란 危機狀況에서 비롯된 것이나, 漢城 都邑期 百濟 文化의 주체였던 中央勢力的 붕괴를 가져왔고, 연 이은 救援軍 중심의 熊津遷都는 그들 간의 치열한 權力鬭爭이 展開된다. 그러나 武寧王의 등장은 權力鬭爭의 終結만이 아니라 一元化된 社會體制의 구축과 함께 새로운 百濟文化 발전의 터전이 마련되기에 이른다. 政治·社會 統合은 곧바로 文化狀에도 반영, 多樣性을 배경으로 強力한 王權下에 새로운 文化基盤이 구축되고 이에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업그레이드된 熊津·泗泚期의 百濟文化가 滿開되는 것이다

熊津·泗泚期 百濟社會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佛敎文化의 盛行이다. 기실 百濟社會의 佛敎 흔적은 서기 384년의 公認으로 感知되나 오히려 熊津遷都 후, 그것도 혼란이 수습된 熊津都邑期 후반 경을 시작으로 僧侶의 活動이나 寺刹 建立 사실을 통해 추적된다. 특히 佛敎文化의 盛行은 佛敎活動만이 아니라 상징성이 강한 寺刹 등의 佛敎建築 등에서도 高度의 文化力量을 유감없이 발휘한 채 풍부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百濟人의 多情多感한 情緒가 실감나게 반영된 瑞山磨崖佛, 그 本尊佛의 微笑에 스며있는 百濟人의 여유는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다. 泗泚 都城을 한없는 風磬소리로 뒤덮었을 수많은 寺刹이라던가, 사찰안의 우뚝 솟은 木塔의 아름다움은 가히 壯觀을 이루었을 것이다.

佛敎文化는 이처럼 百濟文化의 중심에 있고 그 영향력은 모든 분야에 걸쳐 크게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佛舍 建築은 가장 돋보이는 遺産으로 이를 통한 百濟 建築文化의 優秀性이 남달랐음을 추정하기 어렵지 않다. 熊津遷都 후 公山城內 推定王宮址 建築物이라던가 停止山의 特殊 建築物은 이전보다 훨씬 발전되고 세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築城術이나 石材 加工術, 그리고 宮闕 및 寺院 建築에 사용된 각종 建築部材로 기와 및 벽돌 등의 製作技術은 百濟人의 建築文化 수준이 남달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축성술에 나타난 浮葉技法, 版築技法, 加功石材의 結構法을 비롯하여 壁柱建物이라던가 기와건물의 축조 등은 古代 建築文化로서는 尖端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百濟人의 석재 가공에 발휘된 기술적 우수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 듯하다.

고고학 자료의 형성과 관련이 있겠지만 百濟遺蹟은 石材 加工物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크게 주목되는 것은 石塔이다. 우리나라 三國時代의 石塔으로는 益山의 彌勒寺址 石塔과 扶餘의 定林寺址 石塔이 전한다. 본디 佛塔은 木塔이었고 百濟에도 각각의 寺刹에는 대체로 木塔이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木塔은 각각의 환경에 따라 재료의 變化가 나타나는데 中國大陸은 磚塔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日本列島는 여전히 木塔이 성행하지만 우리나라는 木塔 대신 石塔이 佛塔의 주류를 이루는데 그것이 百濟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百濟人의 文化感覺의 柔軟性과 함께 創意性이 남달랐다는 것을 象徵的으로 보여준다. 百

百濟人의 文化의 變容과 適應力은 古墳建築에서도 추적된다. 古代社會에서 死後世界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고 무덤은 그 구현체로서 건축 및 副葬 環境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러면서 社會 環境이 민첩하게 반영되어 墳墓에는 位階性이나 時期性이 분명하게 나타나기에 특정시기 文化實狀을 탐색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이용된다. 百濟의 古墳文化는 多樣性 속에 출발하였지만 일찍이 橫穴式 石室墓制를 채용하고 이를 기회로 주변국에 石室墓制 파급의 主體가 된다. 그러면서 百濟 石室墓制는 時代와 環境變化에 따라 지속적 變化, 改良이 진행된다. 특히 熊津 都邑期에 일시적으로 中國의 塼築墓制가 도입되나 곧바로 百濟 특유의 石室墓制로 改良, 확대 보급되기도 한다. 古墳建築에 나타나는 石材 加工術, 石材 結構技法을 비롯하여 構造의 定型性 등은 古墳建築에 반영된 百濟人의 技術的 力量을 충분히 가늠케 한다. 부분적이지만 무덤 벽화에 드러난 그들의 美意識 또한 만만치 않았음도 주목되는 것이다.

百濟人의 美意識이나 예술 감각의 우수성은 各種 工藝品에 含蓄的으로 나타난다. 百濟의 金銀 細工術은 이미 漢城 都邑期에 絶頂에 달하였고 이후 熊津時代를 거쳐 泗泚時代에 이르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技術的 力量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漢城 都邑期에 地方의 首長들에게 賜與한 金銅冠帽라던가 金銅製 飾履, 그리고 각종의 還頭大刀는 내용에서 기술적 우위가 단연 돋보이는 것들이다. 이미 漢城 都邑期에 百濟의 金銀 細工術은 기초적 力量이 풍부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熊津 都邑期로 편년되는 武寧王陵에서 出土된 各種 金銀細工品은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藝術 感覺에 이르기까지 完璧을 구사한 것으로 본다. 마음껏 구사한 累金技法 등의 細工術, 頭枕과 足座, 그리고 臺盒에 그려진 그림들은 최고의 경지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나아가 泗泚 都邑期에 나타나는 金銀細工術의 절정은 陵寺 出土 金銅大香爐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力量은 차라리 神의 境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金銅大香爐는 百濟文化, 百濟 藝術의 結晶體이다. 香爐에 감도는 신비함은 且置하더라도

均衡感과 精巧함, 그리고 각각의 구성 부위에 숨겨진 匠人의 숨결은 기왕에 정립된 百濟文化의 力量이 그대로 含蓄된 것이다. 香爐製作 기술에 적용된 鑄造技法은 武寧王陵 出土 多利作 王妃 팔찌에서 그 정교함이 발견되기에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다. 金銅大香爐의 제작은 百濟의 工藝文化, 특히 金銀細工術이라던가 美意識 발로의 集約이다. 하단에 香爐를 받치는 트립하는 龍이라던가, 중간의 연화문양 그리고 상단의 鳳凰은 이미 扶餘 外里에서 발견된 벽돌에 그 형상이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山景紋磚을 비롯하여 鳳凰紋磚·龍紋磚 및 蓮花紋磚이 그것인데 용문전에 응크리고 있는 龍을 승천시키면 그대로 향로의 龍이 된다. 연화문전의 연꽃을 오므리면 향로 몸체의 연봉이 되고, 허공을 나는 鳳凰은 연화문전에도 자리하고 있다. 향로 몸체의 곳곳에 山神이 머무는 情景이 山景文과 무관할 수 없겠지만 五樂士나 神仙의 悠悠自適함에 百濟人의 여유로운 文化情緒가 느껴진다.

百濟人의 文化發展의 결과는 生活文化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자료적 한계가 있지만 土器나 기와생산 등의 窯業技術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百濟의 窯業은 질그릇이 생활 필수품이었기에 일찍부터 社會底邊에 깊게 자리하였던 분야이다. 특히 中國과의 활발한 교류에서 새로운 製品이 유입되고, 이를 통한 窯業의 發展도 크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미 4세기 초엽에 中國에서 流入된 瓷器가 등장하고 이후에는 中國의 黑磁를 비롯한 靑瓷 등이 널리 유포되면서 이를 模倣한 製品 生産이 발견된다. 百濟 특유의 黑色 磨研土器의 存在는 窯業技術의 발전을 지나 새로운 創案品도 발견되는데, 泗泚 都邑期의 灰色 規格土器의 존재는 요업을 비롯한 百濟의 工藝文化가 한 단계 上向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와는 건축 재료로 지붕을 덮는 부재이다. 그런데 기와의 사용은 建築文化의 力量을 가늠하는 指標일 뿐만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文化水準이 측정되기도 한다. 百濟의 기와 생산은 이미 漢城 都邑時期에 비롯되어 그 先進性을 나타낸다. 여기에 熊津都邑 이후는 擴大 生産 뿐만 아니라 보다 洗練되고 整齊된 제품생산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막새기와나 치미 등의 생산은 건축물의 장식에 美的 要素를 強化하는 것이고 막새기와에 베풀어진 문양의 다양성은 百濟人의 美意識 정도를 가늠케 해준다.

이처럼 熊津·泗泚期의 百濟文化의 우수성과 탁월함은 佛敎文化와 建築, 金屬工藝는 물론 窯業 등의 土陶·工藝文化에서 폭넓게 認知된다. 비록 物質文化에 반영된 것이나 그들의 文化力量은 동아시아에서 단연 돋보이는 수준으로 봄에 문제가 없기도 하다. 다만 실상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직접적 記錄이 없다는 한계는 있는데 최근에 축적되는 木簡資料, 간헐적으로 발견되는 金石文은 백제인의 높은 文化力量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자료이기도 하다. 특히 沙宅智積碑에 나타난 流麗한 文體와 深奧한 意味는 그들의 文學的 世界의 깊이를 추정함과 더불어 이를 통한 熊津·泗泚期 百濟의 眞面을 결코 古代國家에 한정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암시한다.

4. 熊津·泗泚時代 百濟文化의 特性

韓國文化 특히 韓國 美의 特徵은 線에 있다고 보며, 線으로 표현되는 유연함은 부드럽고 여유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꼽는다. 나아가 線으로 構成된 空間은 進就性과 力動性도 강조되지만, 유연함이 두드러지고, 그것은 韓國的 自然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그것이 韓國人의 美意識으로 봄이 一般的이다. 꾸밈이 적고 假飾이 없는 自然 그대로의 美, 이러한 美感

覺이 韓國의 美 感覺이고 우리의 情緒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情緒는 百濟의 美 意識, 즉 百濟의 文化屬性에 그대로 확인된다. 緩慢하며 부드럽고, 餘裕있는 美意識이 백제의 美 意識이라는 평가와 相通하기 때문이다.

百濟는 紀元前後 무렵 漢江流域에 자리한 이후 거의 700 여년 興亡盛衰의 歷史를 經驗한 古代國家이다. 따라서 그들의 文化力量도 歷史經驗에 따른 變化를 토대로 成立된 것임은 물론이다. 특히 百濟의 熊津·泗泚時代는 오랜 漢城 都邑期를 거치면서 蓄積된 文化力量이 高句麗 侵攻에 의한 都城 陷落이란 總體的 亂國 등으로 消失될 危機에 봉착한다. 그러나 熊津遷都 후 混亂된 政局의 收拾, 強力한 王權의 確立 등의 國力中興을 機會로 이전보다 質的으로 向上된 文化力量을 다시 갖추게 되었고 이로서 創出된 것이 熊津·泗泚時代의 百濟文化이다. 따라서 熊津·泗泚時代의 百濟文化는 漢江流域에서 정립된 것이 錦江流域에서 재정립되어 보다 세련되고 발전된 형태로 정착된 高度로 整齊·發展된 文化 結集體라고 볼 수 있다.

百濟文化 性格으로 가장 돋보이는 것이 國際性和 開放性이다. 百濟는 韓半島 西南部의 開放的인 地理的 環境에 立地하였기에 對外交流를 적극적으로 展開할 수 있었고, 이를 기회로 中國의 先進文化를 폭넓게 수용한다. 3세기 말에 西晉을 통한 先進文化 수용을 시작으로 4세기대 東晉과의 交流를 통해 文化收容의 범위를 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양적으로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이룩한다. 그 결과 佛敎의 公認이나 各種 文物을 수용하게 되었으니 百濟의 國際交流에 대한 積極性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은 熊津遷都 이후에도 계속된다. 특히 遷都 후 混亂한 政局과 高句麗의 妨害에도 불구하고 中國과 交流를 지속코자하는 노력은 百濟의 先進文化 수용에 대한 積極性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습은 泗泚時代에도 변함없다.

百濟의 國際交流에 대한 積極性은 對 中國 交流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수용된 先進文化의 自己消化를 거쳐 이를 다시 新羅나 伽倻, 그리고 倭에 傳授하여 동아시아의 各國의 다양한 文化 創出에 기여하는 것이다. 新羅文化 底邊에 스며있는 百濟的 要素라던가, 伽倻文化와 百濟文化間의 不可分의 關係, 日本列島 古代文化에 기여한 初期情況과 함께 飛鳥文化 성립에 百濟文化의 기여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百濟文化의 國際性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그들은 수용한 先進文化를 독점하기보다 周邊社會와 共有함으로써 相生을 도모하니 그들의 進就性과 開放性이 전제된 멋진 國際 感覺이 감지된다. 또한 百濟文化는 中央과 地方 그리고 國家間의 相生的 性格도 注目할 만하다. 百濟의 國家建立은 기원 전후한 시기로 보지만, 오히려 三韓중의 馬韓地域 小國의 범주에 오랫동안 머물렀음은 周知된 사실이다. 나아가 百濟의 成長은 다른 환경의 小國을 통합, 古代國家로 성장하였다는 것도 一般的 인식이다. 나아가 文獻紀錄에서 百濟는 古代國家로 成長하였음에도 주변의 小國을 征服하였다거나 혹은 국가 운영 중에 叛亂을 일으켰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古代國家로서 어느 정도 執權力을 갖추지만 地方社會를 그들의 傳統的 基盤에 安住할 수 있는 環境이 조성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이는 百濟가 그만큼 國家形成 過程에 順理的이고 合理的인 相互融合의 秩序體系를 갖추면서 柔軟한 統制策을 갖춘 것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威勢品을 통한 地方統制가 그 단적인 例일 것이며 그러한 相互 互惠의 關係정립은 漢城 都邑期의 政治·社會的 특징일 것이고, 融合과 相生의 社會環境에서 생성된 文化狀이야 말로 多樣性을 토대로 수준 높은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相生, 統合의 環境에서 熊津·泗泚期가 도래된 것이다.

熊津 都邑期 百濟社會의 情狀은 초기혼란 극복과 함께 새로운 國家體制의 構築이란 命題가 부여되었고 이는 武寧王의 卽位를 기회로 王權強化와 함께 地方에 대한 一元的 統制策도 마련된다. 이제 기왕의 擔魯制를 통한 相生的 關係유지보다는 方·郡·城制를 통한 一元的 統制가 進行되어 기왕에 相生的 關係를 토대로 성장한 多元的 文化 環境이 일원화된 보다 進일보한 文化 環境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相生 속에 多樣性을 발휘하며 발전을 거듭한 百濟文化가 일원화됨으로써 새로운 文化 창조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韓國 古代文化의 精髓인 熊津·泗泚文化가 滿開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百濟文化는 창조성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百濟文化가 동아시아 文化의 核心으로 자리할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다. 百濟의 文化基盤의 複合性은 매우 크다. 建國 主體勢力은 北에서 流移하여 南下한 집단이고, 이들은 漢江流域에 정착하면서 그 지역의 土着文化를, 그리고 國家 成長過程에 馬韓地域의 다양한 固有文化를 포괄하여 基盤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는 百濟의 基盤文化가 多樣性이 擔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아가 이후 國家 成長이 加速化되면서 中國의 先進文化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러한 情狀은 국가 멸망 직전까지 一관되게 이루어진다.

百濟는 開放的인 地理特性에 기인하여 國際的 感覺을 갖추었고, 여기에 그들의 文化는 多樣한 傳統基盤 위에 立脚한 것이다. 이는 百濟로 하여금 旺盛한 文化 創造力을 兼備할 수 있는 기회를 提供하였을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百濟는 先進文化의 수용과 이를 傳統文化에 接木하여 固有의 獨創的 文化를 發展시키는 수단을 발휘한 것이다. 中國文化의 수용을 통해 왕성한 그들의 先進文化에 대한 欲求를 충족시키면서 外來文化의 直接 收容보다는 자신의 獨自의 文化意識에 接목, 독특한 百濟文化를 재창출하는 것이다.

百濟의 建築과 彫刻, 특히 金銀 細工品에 스며있는 부드러움과 유연함은 韓國的 美 傳統인 自然環境을 그대로 含蓄한 美意識이다. 百濟 와당에 표현된 연화문의 부드러움은 가장 韓國的 屬性을 간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꾸밈이 없지만 세련되고, 誇張되지 않은 謙遜의 端雅한 아름다움이 百濟文化의 創造的 特徵이다. 찬란한 金銅大香爐도 완벽에 가까운 細工術과 함께 構圖나 表現의 完成度는 극에 달하였지만 전혀 誇張이나 어색함이 없다. 공간과 부위구성의 완벽함이 絶頂에 도달했고, 섬세한 紋樣은 살아있는 것과 無異하다. 그러면서도 思想性이나 象徵性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그러나 바탕은 中國처럼 先進地域에서 수용된 文化에 있었고 거기에 보다 새롭고 精製된 百濟的 要素가 加味되었음에서 百濟文化에 반영된 百濟人의 文化力量 즉 創造性을 느낄 수 있다.

熊津・泗泚期の百濟文化

李南爽(公州大学校 史学科)

文化が人間行為の総合を意味するとき、百濟文化は百濟人の営みから出てくる趣が染み込んでいる有・無形の遺産であるだろう。百濟は漢江流域から始め、700年間興亡盛衰を繰り返し、錦江流域で国家の運命が終わった古代国家である。韓半島の西南部の狭い地域を占めていたのだが、地政学的条件に力を得て文化強国の面貌を遺憾なく発揮し、東アジアの古代文化の形成の基礎の役割を果たしたのである。もちろん以降固有の韓国文化発展の土台にもなった。

百濟文化の優秀性は彼らが残した痕跡の面々に深く染み込んでいる。中国の先進文化を積極的に受け入れる一方、自分なりに消化・融合を通し、見事に自分の物に再創造したのである。もちろん周辺に広く伝えることにより、東アジア古代文化の創造及び媒介者の役割も見事に果たした。百濟は東アジアの古代文化発展の中核的な役割を担当した国家として評価出来るだろう。自己の文化発展のために先進文化を積極的に収容し、これの消化の再創造に特別な力量を発揮できる、それなりの文化感覚を備えていた。

しかし、百濟は敗亡国であるため、その実相を具体的に体験・認知するのに限界があるのは事実である。韓国の古代文化の発展に寄与した役割や位相は、決して普通ではないのにも関わらず、体験の出来る歴史的な実相は、むしろ濃いベールに隠れているのみである。敗亡国であるため、彼らの文化遺産は、勝戦国によって徹底的に壊されたばかりでなく、それすら地下深いところに埋没された、悲しい運命であったためである。残された歴史の実相も勝戦国の手に徹底的に裁断され、彼らの口味に合わせられ、料理されたため、敗亡国の真実よりは屈折と歪曲された事実だけが残されているのみである。

百濟人の文化力量が遺憾なく発揮された痕跡は、彼らの疆域はもちろん、東アジアの色々な場所から発見される。敗亡国であるため、徹底的に蹂躪、埋没されたのにも関わらず、時々発見された文化遺産の実態は、まさに名品の中でも名品である。漢城都邑時代の政治・社会の実相を表す金銅冠帽と金銅飾履、環頭大刀のような威勢品などは、彼らの文化力量がどれぐらいか測れる尺度である。最近の風納土城出土品などは百濟文化が早くから国際性を備えており、成長のための多元的な基盤を持っていたのが分かる。

また錦江上流域で展開された、百濟文化は漢江流域で整っていた多様性にベースを置き、より進歩されたので、やがて韓国古代文化の精髓として分類できる水準に至る。武寧王陵に現れる国際性、瑞山 磨崖仏の馴染みと神秘的な微笑みに集約された百濟人の情緒、そして弥勒寺塔と定林寺塔を通して見た、彼らの創造性、陵寺出土 金銅大香炉に集約された百濟文化の優秀性などはむしろ、端的な事例に過ぎない。またこのような文化は決して、短期間に築き上げたものではない。

第3回 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 予稿集

発行 平成22年12月8日

編集 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準備委員会
〒630-8528 奈良市高畑町

印刷 株式会社明新社
奈良市南京終町3-464

